

---

# I

## 권역별 경제 동향

1. 수도권	33
2. 동남권	43
3. 충청권	51
4. 호남권	60
5. 대경권	68
6. 강원권	76
7. 제주권	83



## 1.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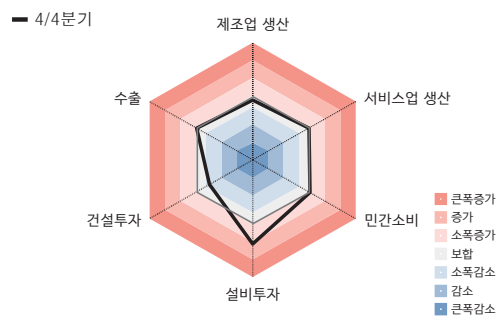
### (1) 개황

#### 수도권 경기 보합

2024년 4/4분기 중 수도권 경기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모두 전분기 수준을 이어갔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수출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 3/4분기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동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며,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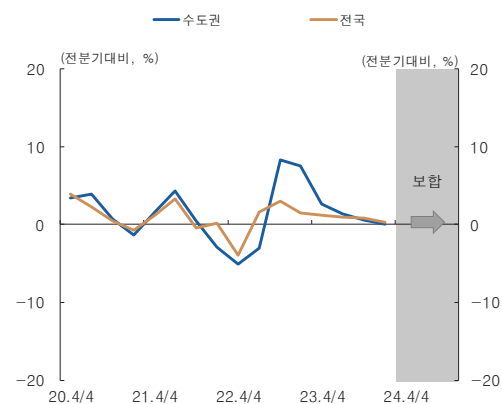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산

###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정제가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장비, 의약품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견조한 AI 서버투자 수요<sup>1)</sup>에 힘입어 고성능 D램(HBM, DDR5<sup>2)</sup>)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사양 범용 반도체의 경우 소비자용 IT기기 수요 부진, 판매가격 하락<sup>3)</sup>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sup>4)</sup>로 인해 업체들이 설비전환, 가동률 조정 등으로 생산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sup>5)</sup>

1) AI 반도체 시장 전망(십억\$, Gartner): ('23) 53.7 → ('24e) 84.0 → ('25e) 114.9 → ('26e) 144.8 → ('27e) 173.2 → ('28e) 196.5  
 2) 서버 및 스마트폰 시장 내 DDR5 판매 비중은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각각 63% 및 49%이며, 25년 하반기까지 82% 및 62%로 증가할 전망이다.(Trendforc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3)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DRAMeXchange)  
 [D램(DDR4 8GB)] (24.7월) 2.10 → (8월) 2.05 → (9월) 1.70 → (10월) 1.70 → (11월) 1.35  
 [낸드(MLC 128GB)] (24.7월) 4.90 → (8월) 4.90 → (9월) 4.34 → (10월) 3.07 → (11월) 2.16  
 4) 중국에 대한 범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4년 2분기 6.5조원에서 3분기 3.9조원으로 감소하였다. 반

반면 자동차는 전년도 높은 실적에 대한 지지 효과<sup>6)</sup>, 부품사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sup>7)</sup>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OLED 패널이 탑재된 신제품에 대한 수요<sup>8)</sup> 약화로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정제는 주요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생산이 감소하였다.

한편 기계·장비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기계 수요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전분기의 생산 수준을 이어갔으며, 의약품은 생산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보험세를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신규 공장 가동이 본격화(ramp up)<sup>9)</sup> 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 캐즘, 해외생산 증가 추세<sup>10)</sup> 등은 생산의 제약요인이다.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전분기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제품 사양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AI 투자 지속, 신형 AI 칩 출시<sup>11)</sup> 등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시장수요가 많은 고성능·저전력 제품(HBM, LPDDR5, QLC SSD<sup>12)</sup>) 생산<sup>13)</sup>에 주력하는 한편, 당분간 수요 개선이 어려운 범용 반도체<sup>14)</sup> 생산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장비, 의약품도 전분기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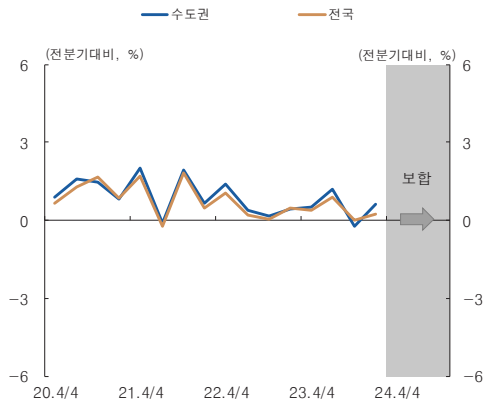
면 고성능 반도체 매출 비중이 큰 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이익이 2분기 5.5조원에서 3분기 7조원으로 증가하였다.(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보고서)

- 5) 업계에 따르면, 고사양 D램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최근 수요 부진, 판가 하락 등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낸드플래시의 경우 50~70%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업체들은 저사양 범용 반도체 생산장비 일부를 HBM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설비 전환을 진행하는 등 범용 반도체 생산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 6) '23년 4/4분기 국내 자동차 생산 실적은 지난 5년간 동 분기 실적 중 최대치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7) 현대트랜시스(변속기 공급 업체) 파업 이후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파업 철회(11.10일) 이후 가동률이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 8) 아이패드 프로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3/4분기 아이패드 프로 OLED 패널 출하량이 30~40% 감소한 가운데, 4/4분기에도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DSCC)
- 9) 기아자동차 광명 EVO-Plant(24.9월 준공, 연간 15만대 생산 규모)는 지난 9월부터 생산에 돌입하여 10월까지 EV3 1만대를 생산하였다. 4/4분기 중 본격 가동 준비를 마무리하고 25년부터는 EV4를 함께 생산하면서 가동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10)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10월 준공 후 초기 생산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기아·제네시스 전기차 등 6~7개 차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가동하려던 초기 계획과 달리 하이브리드 혼류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11) SK하이닉스는 '24년 4/4분기에 출시되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탑재될 12단 HBM3E의 양산을 시작했고 연내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SK하이닉스, 9.26일)
- 12) QLC란 낸드플래시의 기본 저장 단위인 셀(cell) 하나에 4비트(bit)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셀 하나에 4비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만큼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칩 크기도 줄일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 스토리지 용량 증설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에서 QLC 낸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13) D램의 경우 기존 LPDDR의 메모리 대역폭을 향상시킨 후속 제품(LPDDR5X-PIM, LPDDR6)을 개발중이며, 낸드플래시의 경우에는 AI 서버용 고용량(256TB) QLC SSD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4E를 2026년 출시할 예정이다.(세미콘 타이완 2024)
- 14)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IT 전방수요 부진, PC 제조업체들의 재조정, AI PC 출시 기대에 따른 PC·노트북 구매 지연 등의 영향으로 PC·모바일용 범용 반도체의 수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또한 창신기업(CXMT) 등 중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공급 증가도 국내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 증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다.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기업인 ASML은 3/4분기 순예약(net booking)이 26억유로로 시장 예상치(56억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발표(10.15일)했다. ASML 반도체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약 20%(노광장비의 경우 90%)에 이르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ASML 실적은 범용 반도체 시장의 선형지표로 여겨진다.

## 서비스업 생산 보험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운수업 및 도소매업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였다. 금융·보험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운수업은 항공 운항편수 및 여객수 성장 둔화세가 지속<sup>15)</sup>되었으나, 해운 및 항공 화물 운송 증가<sup>16)</sup>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소매점 매출 부진<sup>17)</sup>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쇼핑업의 음식료 관련 매출 증가세가 확대<sup>18)</sup>되면서 소폭 증가<sup>19)</sup>하였다.

부동산업은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sup>20)</sup>하고,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휴·폐업수가 증가<sup>21)</sup>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여전히 높은 외식 체감물가<sup>22)</sup>, 연말 특수 감소<sup>23)</sup>,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둔화<sup>24)</sup>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금융·보험업의 경우 AI 부문 수익성 둔화 우려, 기대에 못 미친 주요 기업 실적 등에 따른 국내 증시 부진으로 증권사의 투자자 예약금 및 신용공여<sup>26)</sup>가 감소하였으나, 예대금리차 확대<sup>27)28)</sup>의 영향으로 은행 부문이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보험세를 유지하였다.

- 15) 10~11월 중 인천공항의 평균 항공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각각 3.5만편 및 606.8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및 16.1% 증가하여 증가세가 전분기(+16.0% 및 +17.8%)보다 둔화되었다.
- 16) 10~11월 중 인천공항의 화물 운송량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24.3분기 +4.1%)하였으며, 10월 중 평택당진항의 해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24.3분기 +2.9%)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 17) 10월 중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4% 하락하면서 전분기 수준(-4.4%)을 이어갔다.
- 18) 10월 중 음식료품 및 음식서비스(배달 등)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각각 17.5%, 15.6% 증가하여 전분기(24.3/4분기 +13.5%, 13.4%)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 19) 한편 온라인쇼핑업은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온라인상품권 거래 부진 등으로 3분기 중 실적이 다소 둔화(24.2/4분기 8.6% → 3/4분기 3.0%, 전년동기대비)되었으나, 4분기 이후로는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 20)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 : '24.3/4분기(월평균) 3.2만건 → 10월 2.5만건
- 21) 공인중개사사무소 휴·폐업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 '24.7월 1,153 → 8월 1,067 → 9월 1,009 → 10월 1,200
- 22) 최근 소비자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외식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11월 중 물가상승률(% yoy, 월평균) : 소비자물가지수 +1.4, 외식서비스 물가지수 +2.9)
- 23) 외식업계에 따르면 통상 4/4분기에는 연말 모임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코로나19 이후 이벤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전국 외식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한국외식업중앙회, '24.11월) 응답자의 9%만이 4/4분기 매출 상승을 예상하는 등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수준이다.
- 24) 10월 중 외국인 방문객수는 16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1% 증가하였으나 전분기(+37.8%)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25) 한편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건비 부담 및 수요둔화 등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드는 등 외식업체들의 고객 수용능력이 낮아졌으며, 이는 외식업 생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6) 증시 투자자 예약금 및 신용공여 증가율(% 전분기 말잔 대비) : '24.2분기 +0.8 → 3분기 -3.0 → 11월말 -7.3
- 27) 최근 감독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은행들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달성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대출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예금은행 여수신금리차(%p, 신규취급액 기준) : '24.3/4분기(월평균) 1.16 → 10월 1.3)
- 28)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감(조원, 전월대비) : '24.7월 +5.2 → 8월 +9.7 → 9월 +5.3 → 10월 +6.5 → 11월 +5.1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최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일정 기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sup>29)</sup>

도소매업<sup>30)</sup> 및 숙박·음식점업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수업은 중국발 화물 물동량<sup>31)</sup> 증가,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sup>32)</sup> 등의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기둔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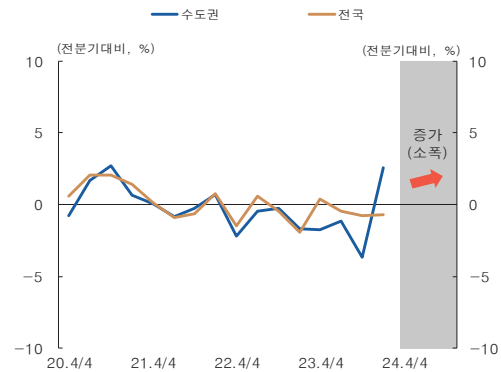
부동산업은 대출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위축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험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증가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 소비가 포함 수준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재화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sup>33)</sup>는 승용차<sup>34)</sup> 구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sup>35)</sup>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준내구재<sup>36)</sup>는 취미

29) 과거 실증분석(2017년 1월 통화신용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생산 및 고용,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대체로 3분기 이후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숙박·음식, 도소매 등 전통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 속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관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30) 한편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중국 e커머스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국내 e커머스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1)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 증가로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항공화물 운송량도 늘고 있다.

(24.3/4분기 대중국 온라인 해외직구 증가율(yoy): +45.0%, 인천공항 대중국 화물 운송량 증가율(yoy): +7.5%)

32) 최근 중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11.8일)하고 무비자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11.30일)하였다.

33) 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전국, 계절조정, %, 전분기대비): '24.3/4분기 +3.2 → 10월 -2.3

34) 10~11월 중 승용차 신규등록대수 증가율(수도권, %, 전년동기대비): '24.3분기 -4.2 → 10~11월 -0.4

35) 10월 중 통신기기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 전분기대비)는 지난 분기 신제품 출시(9월, 아이폰16)의 기저효과 등으로 9.1% 감소하였다.('24.3/4분기 +8.4%)

36)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전국, 계절조정, %, 전분기대비): '24.3분기 -4.2 → 10월 +2.4(취미용품: '24.3분기 -4.3 → 10월 +6.4)

용품 등을 중심으로, 비내구재<sup>37)</sup>는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외식물가 부담 등으로 숙박·음식 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관련 온라인서비스<sup>38)</sup> 및 의료<sup>39)</sup>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대체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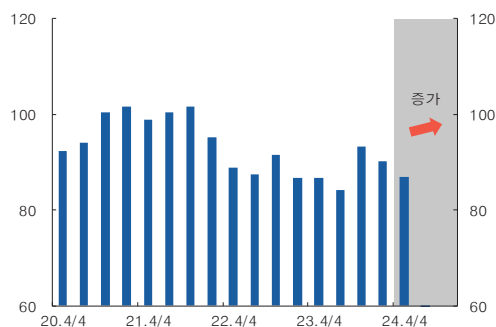
재화 소비의 경우 금융여건 완화, 신차효과<sup>40)</sup> 등에 따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sup>41)</sup>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에도 물가 안정세, 실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 설비투자 증가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증가하고 의약품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장비, 석유화학·정제, 철강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다만 4/4분기 설비투자실행

BSI(10~11월 실적 평균)는 중소제조업의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HBM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가 증가<sup>42)</sup>하였다. 신규 공장 투자 외 기존 낸드플래시 및 범용 D램 라인의 설비전환<sup>43)</sup>을 통해 투자를 큰 폭 확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업황이 좋지 않은 범용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하는 등 기업 간 격차는 큰 상황이다. 의약품은 신규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37) 10~11월 중 수도권 지역 음식료품 부문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여 전분기(-1.7%)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38) 10~11월 중 수도권 지역 전자상거래 서비스 부문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여 전분기(+15.7%)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39) 10~11월 중 수도권 지역 의료서비스 부문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여 전분기(+4.8%)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40) 2025년 중 기아자동차의 EV4,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9 부분 변경 모델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41) 다만 통신기기 및 컴퓨터의 경우, 최근 AI PC·스마트폰 출시를 기다리는 구매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기간 중 구매했던 IT기기의 교체주기가 길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42) SK하이닉스는 HBM 전용 공장에 반도체 노광장비를 반입하는 등 4/4분기 들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20조원의 투자를 모두 집행한 데 이어 최근 2~3조원의 추가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K하이닉스)  
 43)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팹택 P4 공장 장비반입 속도를 조절하면서 일부 파운드리, 범용 D램 라인을 HBM 공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경우 파운드리 2nm에서 D램(DDR5) 공정으로 설비 계획을 변경하고 13, 15 라인 등 DDR4 라인의 경우 가동률 조절에 따른 유류 설비를 HBM 라인 전환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다만, HBM3e 품질테스트 지연에 따라 양산 일정이 밀리면서 적극적인 생산능력 증설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디스플레이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재무안정성 강화를 위해 필수 경상투자만 실시하는 등 설비투자에 신중한 모습<sup>44)</sup>을 보이면서 부진이 지속되었다. 자동차는 전동화 설비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분기의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기계·장비, 석유화학·정제, 철강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신규 공장 인프라투자 및 범용 반도체 설비전환 등 HBM 투자<sup>45)46)47)</sup>를 지속하면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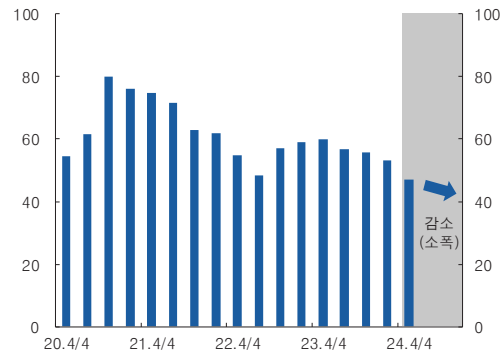
자동차는 전기차 및 목적기반 차량<sup>48)</sup>(Purpose Built Vehicle, PBV) 중심의 설비투자를 지속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는 신규투자<sup>49)</sup>보다는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정제, 기계·장비,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기업의 설비투자는 상당폭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44)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8.6세대 OLED 설비 구축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의 경우 투자자금 부담으로 인해 8.6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8.6세대 OLED 라인 신설을 위해서는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G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6세대는 6세대에 비해 유리원장의 크기가 약 2.2배 크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요 확보에도 유리하다.
- 45) 2025년 HBM 테스트 장비 매출은 전년대비 30.3%, 조립 및 패키징 매출은 3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 46) SK하이닉스는 2025년도 설비투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요가 확보된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HBM 투자에 주력하면서 LPDDR5와 DDR5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M15X와 용인 설비 등을 고려할 때 설비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SK하이닉스 conference call)
- 47) 삼성전자의 경우 R&D단지, HBM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수요가 강한 선단 공정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삼성전자)
- 48) 기아자동차는 화성 오토랜드 내 PBV 전용공장을 건설중이며, 2025년 준공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49)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이 25년 1/4분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매각대금 2조원을 8.6세대 설비투자에 활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착공 지연<sup>50)</sup>, 높은 건설공사비<sup>51)</sup>로 인한 건설업체 사업성 악화와 이에 따른 수주 위축<sup>52)</sup>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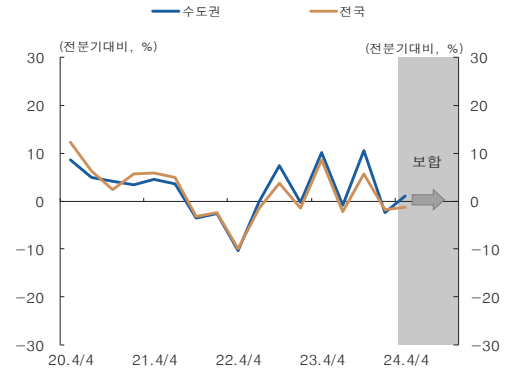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신규 착공 및 수주 위축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SOC 예산 삭감<sup>53)</sup>에 따른 공공부문 건설수주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착공 지연<sup>54)</sup> 및 환경규제 강화<sup>55)</sup> 등이 건설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 보합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며, 의약품은 소폭 감소하였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수출은 범용 메모리반도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AI 서버투자, 신형 AI 칩 출시<sup>56)</sup> 등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분기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규제<sup>57)</sup> 시행(24.12.31일)을 앞두고 국내 업체가 연말 수출 밀어내기에 나설 경우 수출 규모는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50)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2018.9.21)에 따른 3기 신도시 지구(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착공률은 현재 약 6.3% 수준(총 공급물량 17.4만호)으로 당초 목표치(66%, 7.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 착공물량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51) 10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32로 전월(130.45, 사상최고치)에 이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높은 공사비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비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수요가 위축되는 등 건설업체의 사업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10월 말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전년동월대비 27.18% 상승하였다.
- 52) 10월 중 수도권 건축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13.2% 감소하여 전분기(+71.7%) 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 53)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2025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25.5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 SOC 예산도 19.6조원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 54) 공사비 급등 등에 따른 사업비 상승 및 PF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자금조달이 지연되면서 GTX-B-C 노선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GTX-B 노선의 경우 일부 재정구간(상봉~구리)에 대해서만 실착공이 이루어졌으며, 전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GTX-C 노선은 총 사업비(4조 6084억원)가 2019년 12월에 고정금액으로 책정되었으나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토지보상 절차 지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 55)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을 자체 충당하도록 규제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내년 중 민간아파트에도 적용되면서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56)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을 전속력(in full steam)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1/4분기중(회계년도 기준, '24.11~'25.1월)에 기존 예상치보다 많은 물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다.(엔비디아 3/4분기 실적발표 conference call). 업계에 따르면 25년도까지 생산 예정인 블랙웰이 이미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 57) 지난 12.2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HBM을 포함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에 HBM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HBM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 증가세 확대되에도 불구하고 부품사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의 여파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IT 신제품 수요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전분기 실적에 대한 역기지효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는 AI 기능이 탑재된 고사양 IT기기 확산과 더불어 OLED 패널 채택도 확대<sup>58)</sup>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의 경우 AI 투자 관련 고성능 반도체 수출 호조는 지속되겠으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중국기업의 범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sup>59)</sup> 등을 감안할 때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주요국 금리 인하, 하이브리드차의 견조한 수요<sup>60)</sup> 등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캐즘, 유럽, 동남아 시장 내 중국 전기차 점유율<sup>61)</sup> 상승 등 불리한 시장 여건으로 인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sup>62)</sup> 유럽 환경규제 등 글로벌 정책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계·장비, 의약품 등은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석유화학·정제 수출은 주요 상품의 국제시장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8) AI 기능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사양(저전력, 고화질, 대화면)이 높아짐에 따라 OLED에 기술적 강점을 가진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59) 중국 창신기업(CXMT)은 주력제품인 DDR4의 시장점유율이 12%(생산 capa 기준)로 저사양 범용 반도체 시장(국내 업체 점유율 67%)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저사양 범용 반도체 공급을 더욱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업체가 DDR4라인을 HBM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60) 4분기 기아자동차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5.6만대로 예상되면서 전분기대비 약 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10.5만대로 전분기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8, 카니발 하이브리드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하이브리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1) 유럽 내 중국 브랜드 전기차(BEV) 비중은 2020년 2%에서 2023년 7.6%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등 점유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유럽자동차제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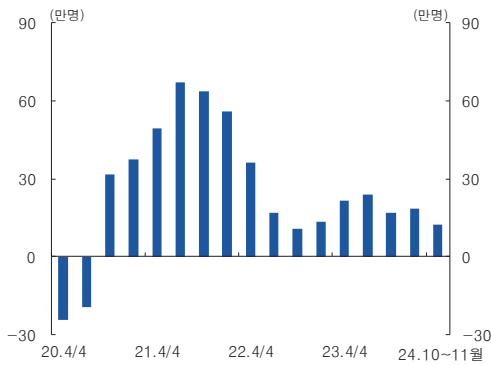
62)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인상 방안을 조사하였으나 미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에 대해 한미 FTA가 체결된 상태지만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관세 부과 또는 쿼터설정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2.4만명 증가하여 전분기(18.6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sup>63)</sup>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도소매·음식숙박업<sup>64)</sup>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sup>65)</sup>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상용근로자 등 임금근로자<sup>66)</sup>의 증가폭은 큰 폭 축소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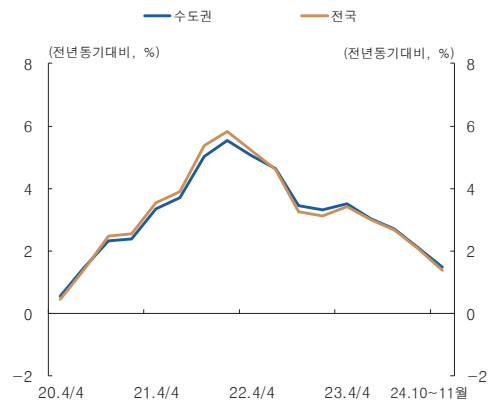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여 전분기(2.1%)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작년 하반기 유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sup>67)</sup>의 영향으로 석유류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sup>68)</sup>된 가운데, 수급 여건 개선으로 농산물가격 상승세가 축소<sup>69)</sup>된 데 기인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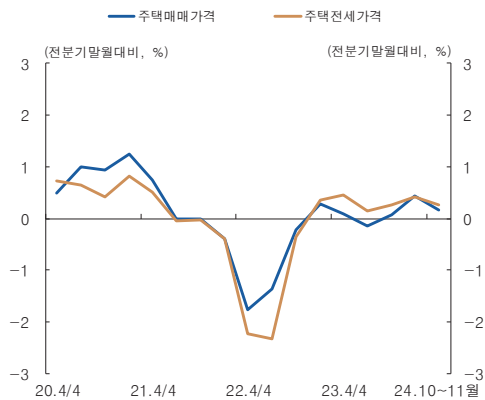
- 63) 10~11월 중 제조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각각 12.4만명 및 3.9만명 감소(전년동기대비)하여 전분기(월평균 각각 -9.4만명 및 -3.1만명)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64) 10~11월 중 서비스업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29.2만명 증가하여 전분기(월평균 +30.5만명)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3/4분기 +5.4만명 → 10~11월 +0.8만명)
- 65) 10~11월 중 비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3.1만명 증가하여 전분기(월평균 +0.2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자영업자 취업자수 3/4분기 +0.7명 → 10~11월 +4.6만명)
- 66) 10~11월 중 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는 9.3만명 증가하여 전분기(월평균 +18.3만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임시근로자 취업자수 3/4분기 +16.6만명 → 10~11월 +10.7만명)
- 67) 11월 평균 국제유가(\$/B, 두바이유 기준)는 72.8로 전년 동월(83.5)대비 12.8% 하락하였다.
- 68) 10~11월 중 석유류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8.2%로 전분기(-0.4%)대비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 69) 10~11월 중 농산물가격(월평균)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7%로 전분기(5.7%)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 월 대비 0.16% 상승하여 전분기(0.44%)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최근 미분양주택 적체<sup>70)</sup> 등 공급과잉이 상존하는 가운데 은행 대출태도 강화, 대출금리 상승<sup>71)</sup>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악화<sup>72)</sup>되면서 매매거래량이 낮은 수준<sup>73)</sup>을 지속한 데 기인한다.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26% 상승하여 전분기(0.42%)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임대차 2법 시행(2020년 7월) 후 전세 계약 종료 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입계약<sup>74)</sup> 등으로 전세매물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70) 10월 중 수도권 미분양주택수는 1.4만호로 전분기(7월 1.4만 → 8월 1.3만 → 9월 1.4만)에 이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71) 10월 중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는 4.05%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7월 3.50 → 8월 3.51 → 9월 3.74)  
 72) 11월 중 수도권 주택의 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 월평균 기준)은 96.7로 전분기(7월 97.4 → 8월 99.2 → 9월 98.6)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냈다.(한국부동산원)  
 73) 10월 중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5만건으로 전분기말(7월 3.8만 → 8월 3.3만 → 9월 2.5만)에 이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국토교통부)  
 74) 24.9월 DSR 2단계(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시행 및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의 전세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 2. 동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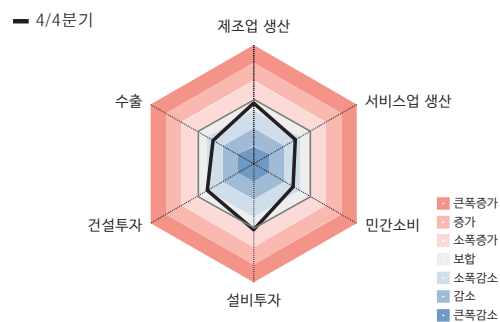
### (1) 개황

#### 동남권 경기 소폭 약화

2024년 4/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포함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자는 소폭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 건설투자 및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하였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와 유사한 하락폭을 나타내었고 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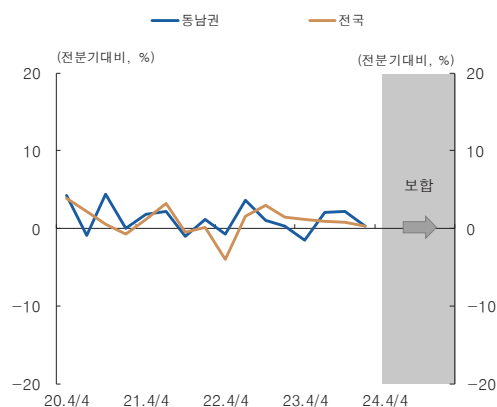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산

### 제조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자동차 및 부품이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및 금속가공과 기계장비가 감소하였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조선은 신규수주 증가<sup>75)</sup>와 LNG 연료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의 건조가 이어지면서<sup>76)</sup> 전분기보다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주요 업체의 임단협 협상 완료<sup>77)</sup>, 신차효과<sup>78)</sup>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은 글로벌 제조업의 더딘 개선세,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 위축<sup>79)</sup>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조선업, 자동차

75) 10~11월 중 동남권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량(월평균)은 146만CGT로 전분기대비 103.1% 증가하였다.(Clarksons)

76) 11월 말 기준 국내 조선사 수주잔량의 65.8%는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LNG Capable, LNG Ready 등)에 해당한다.(Clarksons)

제조업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도 대외 정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세계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LNG 운반선 신조 수요와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 따라 당분간 신규수주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주요 업체의 노사협의 완료 및 업체 간 분쟁 해소<sup>80)</sup>, 전문인력비자 확대 검토<sup>81)</sup>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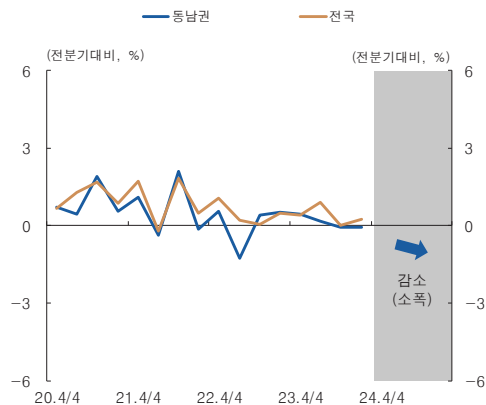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임금협상 완료에 따른 공급 재개, 신차효과 등을 토대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 본격화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석유정제는 친환경 연료 전환 요구 확대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도 중국의 공급 확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계장비는 연말 수주량 위축<sup>82)</sup>의 영향 등으로 4/4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업은 내륙<sup>83)</sup> 및 항만<sup>84)</sup> 물동량이 확대되고 항공 여객 수송 증가세가 이어지면서<sup>85)</sup> 증가하였다.

77) 르노코리아는 10월 중 임단협 협의안이 통과되어 부산공장을 정상 가동하였다.

78) 르노코리아는 10월 중 신차인 그랑콜레오스의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245.4%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79)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석유 수요가 2024년 4/4분기 및 2025년 1/4분기에 각각 전분기대비 7%, 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OPEC(석유수출국기구)은 2025년 석유 수요가 전년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80)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사호는 11월 중 단체교섭이 타결되었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도 고소·고발 취하로 해소되었다.

81)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 부족 심화로 11월 중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조선소의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로 집계되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연평균 1.2만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82) 10월 중 공작기계 수주는 내수 및 수출이 각각 683억원, 1,389억원으로 1~9월 평균에 비해 각각 31%, 11% 감소하였다.

83) 10~11월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 5종) 수는 3/4분기(월평균) 대비 6.0% 증가하였다.(한국도로공사)

84) 부산·울산·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3/4분기에 전분기대비 3.1% 감소하였으나, 10월 중에는 전분기(월평균) 대비 1.8% 증가하였다.(해양수산부)

반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외식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여<sup>86)</sup> 외식 수요가 감소한 데다 지역 방문객 수도 줄면서<sup>87)</sup> 감소하였다. 도소매업도 재화 소비 부진 등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sup>88)</sup>

한편 부동산업은 주택거래 부진이 소폭 완화되면서<sup>89)</sup>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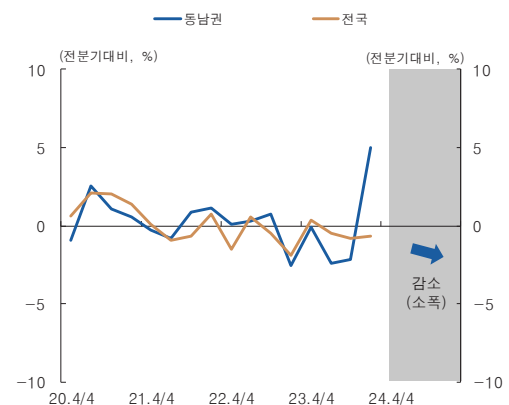
운수업은 여객 및 물류 운송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4/4분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관련 물가 부담,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sup>90)</sup> 등으로 이번 분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도 미분양 주택물량<sup>91)</sup> 등을 감안할 때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재화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자동차 소비가 줄면서<sup>92)</sup> 전분기보다 감소하였다. 준내구재의 경우 의복·직물 소비는 증가한 반

85) 10월 중 김해, 울산 및 사천 공항의 여객 인원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4.7% 증가하여 3/4분기(4.2%)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한국공항공사)

86) 11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외식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6%, 2.6%, 2.8% 상승하여 전체 물가상승률(각각 1.5%, 1.5%, 1.4%)을 큰 폭 상회하였다.

87) 10월 중 동남권 외부 방문객 규모는 3/4분기(월평균) 대비 5.5% 감소하였다.(한국관광공사)

88) 10월 중 동남권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불변)가 3/4분기(월평균) 대비 14.2% 감소함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2.6% 감소하였다.(통계청)

89) 동남권 주택거래량은 2/4분기에 전분기대비 8.6% 감소하였으나, 3/4분기 및 10월에는 각각 전분기(월평균) 대비 4.7%, 1.7%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90) 3/4분기(월평균) 대비 10~11월 평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부산(-0.5p, 108.0 → 107.5)과 울산(-2.3p, 107.3 → 105.0)은 하락하였고, 경남(0.0p, 110.0 → 110.0)은 동일 수준을 유지하였다.(한국은행)

91) 10월 중 동남권 주택 미분양물량은 13,187호로 3/4분기(월평균) 대비 0.9%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국토교통부)

92) 10~11월 중 동남권의 자동차판매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22.1% 감소하였다.

면 레저용품·잡화 소비는 감소하는 등 품목별 소비가 엇갈리며<sup>93)</sup>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내구재도 가정식 수요 증가로 음식료품 판매는 늘었으나 차량용 연료 판매가 줄어들면서<sup>94)</sup>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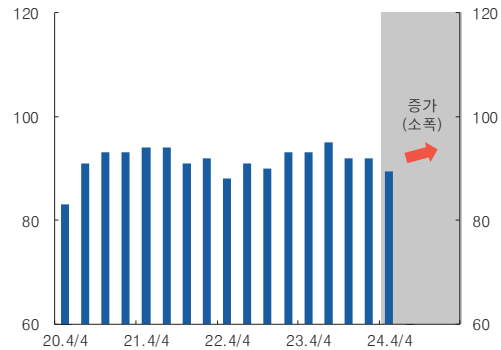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의료, 여행 관련 지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외식, 자동차 정비 등이 소폭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sup>95)</sup>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세 둔화,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가계 소비여력이 일부 개선되면서 4/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및 기계장비가 증가하였으며 철강·비철금속 및 석유정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설비투자실행BS<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는 신차효과<sup>96)</sup>에 따른 생산라인 정비, 전기차공장 건설<sup>97)</sup> 등이 지속되며 증가하였고, 석유화학도 대규모 신규공장 건설<sup>98)</sup>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정기보수<sup>99)</sup>가 진행되며 증가하였다. 조선 및 기계장비는 풍부한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한 조선해양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sup>100)</sup> 한편, 철강·비철금속 및 석유정제는 노후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이어가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93) 10~11월 중 동남권의 의복(1.2%), 직물(5.7%) 등의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증가하였으나, 신변잡화(-1.1%), 레저용품(-0.8%) 등은 감소하였다.

94) 10~11월 중 동남권의 음식료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연료판매는 3.6% 감소하였다.

95) 10~11월 중 동남권의 의료기관 및 여행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3/4분기(월평균) 대비 각각 1.0%, 1.0% 증가하였으나, 요식업 및 자동차정비는 각각 -1.2%, -0.9% 감소하였다.

96) 현대차(캐스퍼EV), 르노코리아(그랑콜레오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신차 판매가 본격화된 가운데 르노코리아의 10월 중 내수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340.7% 급증한 6,395대를 기록하였다.

97) 현대차는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11월 중 공정률은 68%를 기록하였다.

98)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사히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10월말 기준 공정률은 40%를 초과하였다.

99) 롯데케미칼은 9~11월 중 파라자일렌(PX) 및 메타자일렌(MEX) 생산라인의 정기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한화솔루션도 10~11월 중 폴리염화비닐(PVC), 가성소다 등 주요 생산라인의 정기보수를 진행하였다.

100) 한화오션은 최적 생산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24년 4/4분기 중 2,930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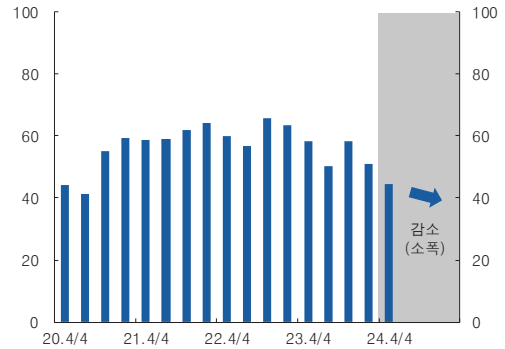
자동차는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에도 불구하고 신차 생산을 위한 설비증설이 이어지며<sup>101)</sup>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장비는 신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며<sup>102)</su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도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 등으로의 사업구조 재편 노력이 지속되며<sup>103)</sup>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 및 기계장비는 LNG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설비 확충 및 보완이 이어지면서<sup>104)</sup>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 착공면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및 공업용 모두 감소하였다.<sup>105)</sup> 주체별로는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누증<sup>106)</sup> 등 부동산 경기 둔화로,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sup>107)</sup>로 모두 감소하였다.<sup>108)</sup>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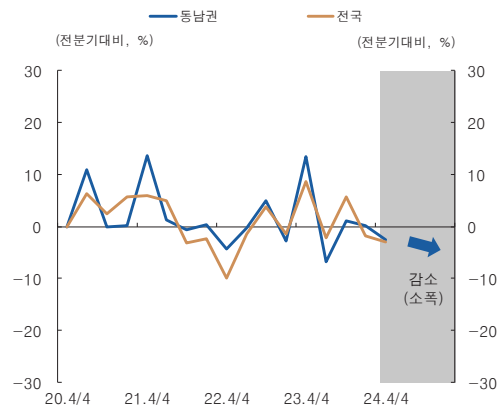
- 101) 현대차는 울산공장 내 건설 중인 전기차 신공장의 생산 규모를 최대 25만대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 4/4분기까지 시험생산을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GM은 친환경차 모델 개발 등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설비 보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향후 3년간 부산공장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신모델 생산을 위한 1,200억원 규모의 설비교체 계획을 발표하였다.
- 102) 삼성SDI는 1.6조원 규모의 울산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3공구 개발사업과 함께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공장을 상반기 중 착공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3) SK케미칼은 재활용 페트 생산 체제 구축을 위해 2023년 3월 재생 플라스틱 중간재(r-BHET) 생산업체인 중국 Shuye社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생 플라스틱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100%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기존 주력 사업인 기초화학 부문의 사업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하고 친환경 그린소재 사업 육성 등을 통해 정밀화학 부문의 매출을 5조원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104) 한화오션은 2026년까지 방산 및 친환경 연료기술 개발과 해상풍력발전 설비 마련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3월까지 총 612억원을 투자해 항공-선박용 배터리 셀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105) 11월 중 동남권의 누적 착공면적(% 전기대비, 36개월 누적)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각각 5.4%, 4.8%, 0.7%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 106) 10월 말 동남권의 미분양주택은 13,187호로 7월 말 코로나19 기간 이후 최고 수준(13,368호)을 기록한 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국토교통부)
- 107) 10~11월 중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부문(수송 및 교통, 국도 및 지역개발) 예산 지출액은 월평균 4,861억원으로 3/4분기(5,847억원) 대비 16.9%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 108) 11월 중 동남권의 누적 착공면적(% 전기대비, 36개월 누적)을 주체별로 보면 민간은 4.3%, 공공은 0.1%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면적 감소<sup>109)</sup>, 동남권 내 건설사 부도<sup>110)</sup>, 건설수주액 감소세 지속<sup>111)</sup> 등으로 4/4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소폭 감소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2)</sup>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선박은 증가하였으나 석유제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석유화학제품, 철강금속은 감소하였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일평균 수출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동차는 북미 시장의 수요 증가 및 조업일수 확대<sup>113)</sup>로 증가하였으며, 선박은 단가 피크아웃 우려<sup>114)</sup>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하였다.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세 지속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3/4분기 수출물량 호조의 기저효과<sup>115)</sup>로 감소하였다. 기계(수송기계 제외)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 및 생산 가동률 조정<sup>116)</sup>으로 소폭 감소하였다.<sup>117)</sup> 철강금속제품은 수출단가가 하락 전환하며<sup>118)</sup> 비철금속 위주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금속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중국의 공급 과잉<sup>119)</sup>으로 인한 단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인상정책 및 화석연료 친화정책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sup>120)</sup>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LNG선 및 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출 호조 흐름이 지속되며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수송기계 제외)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수요가 견조할 것으

109) 동남권의 누적 건축허가면적(% 전기대비, 36개월 누적)은 2024년 1/4분기 1.8 → 2/4분기 -0.7 → 3/4분기 0.6 → 11월 -1.7로 2024년 4/4분기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국토교통부)

110) 2024년 1~10월 중 동남권 내 건설 부도업체는 9곳(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1곳)으로 전국 건설 부도업체(26곳)의 34.6%를 차지했으며(국토교통부), 11월에는 시공능력 기준 부산 7위인 신태양건설의 부도가 발생하였다.

111) 10월 중 동남권 누적 건설수주액(36개월 누적)은 전분기대비 0.7%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112) 10~11월 중 동남권의 일평균 수출액(5.3억달러)은 전분기(5.5억달러)대비 4.8%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113)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임금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조업일수가 증가하였다.

114) Clarkson 신조선가지수는 연중 내내 상승세를 보이며 9월 189.96까지 상승한 뒤 10월 189.18로 하락하였다.

115) 3/4분기 중 주요 업체(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의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한국정유산업협회)

116) 롯데케미칼 등 주요 생산업체들은 생산 가동률 하향 조정(울산), 공정 폐쇄(여수) 등으로 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117) 10~11월 중 동남권의 석유화학제품(MTI 21) 수출단가 및 수출총액은 3/4분기(월평균) 대비 각각 2.4% 및 8.9% 감소하였다.

118) 2024년 중 지속 상승하던 동남권 철강금속제품 수출단가는 4/4분기 들어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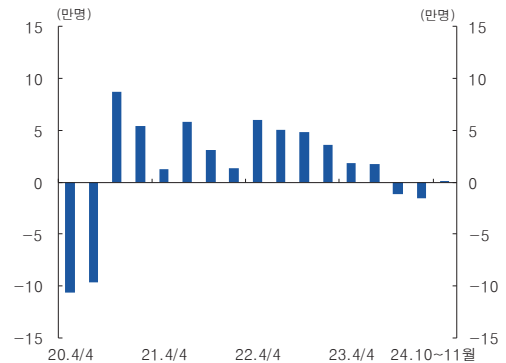
로 예상되나, 중국 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4/4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은 내년 중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인상 및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 전환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보합수준이며 전분기 감소(-1.5만명)에서 증가(0.05천명)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서비스업은 증가 전환하였으며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임시근로자의 감소폭이 늘어난 반면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은 확대되었고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부산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경남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19) 중국 내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과잉은 2025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석유화학공업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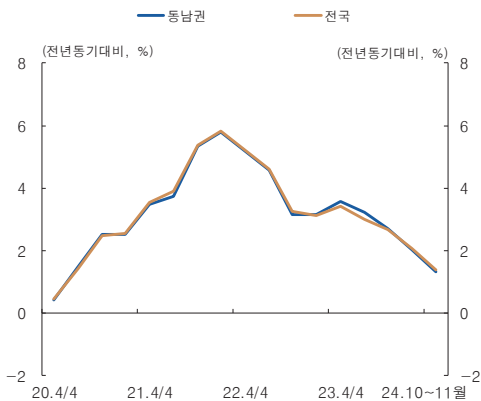
120) 사우디아라비아는 12월부터 점유율 증대를 위해 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또한 미국의 석유 시추 규제 완화를 시사함에 따라 유가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3%로 전분기(2.0%)에 비해 상승폭이 상당폭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유가 하락세 지속에 따라 석유류<sup>121)</sup>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공공서비스의 상승세가 둔화되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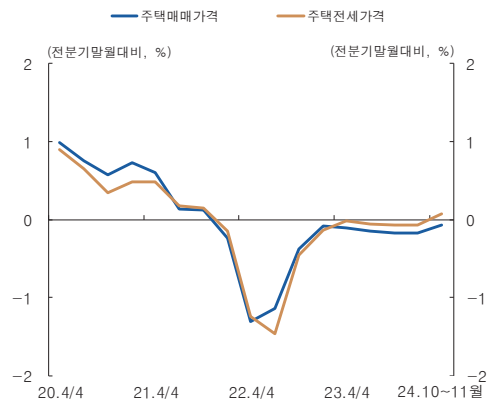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주택매매가격 하락 지속 및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0.08% 하락하여 3/4분기(-0.06%)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경남은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부산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수급지수의 경우 10~11월 중 87.1로 전분기(87.4)보다 하락하여 매도우위 흐름이 강화되었다.

한편 10~11월 중 전세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0.08% 상승하여 3/4분기(0.0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울산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경남도 증가 전환하였다. 전세수급지수도 10~11월 중 94.0로 전분기(92.8)보다 높아졌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말 기준. 단, 표본재설계 이전인 2021.6월까지의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121)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3/4분기 -9.5%에서 10~11월 중 -15.3%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석유류 가격도 하락 전환(0.1% → -8.4%) 하였다.

### 3. 충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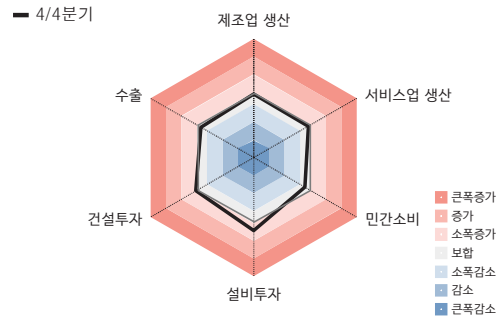
#### (1) 개 황

##### 충청권 경기 보합

2024년 4/4분기 중 충청권 경기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3/4분기보다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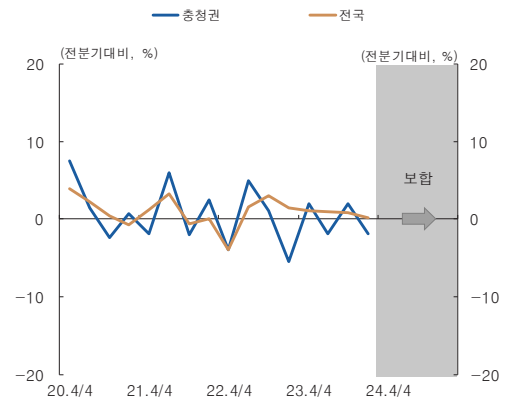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제조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의약품이 소폭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전기장비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하였으나,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위축<sup>122)</sup>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의약품은 고령화 등으로 국내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신제품<sup>123)</sup>을 중심으로 해외수요도 가세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122) 중국산 메모리반도체 공급 증가, PC·모바일 제조업체 재고 조정 등으로 3/4분기 중 DDR4 등 범용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예상을 하회한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4년 3/4분기 실적발표)

123) 올해 유행양행의 폐암치료제(렉라자), 대웅제약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펙수클루), GC녹십자의 혈액제제(알리글로) 등이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새로 출시되었다.

디스플레이는 OLED가 탑재된 신형 제품 판매 부진<sup>124)</sup>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지역 내 부품업체의 파업<sup>125)</sup>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수입 증가, 지역 내 업체의 설비보수 진행<sup>126)</sup> 등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석유화학은 구조적인 업황 부진 지속<sup>127)</sup>, 제품 수익성 악화<sup>128)</sup>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기장비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sup>129)</sup>에도 불구하고 북미를 중심으로 ESS전지 수요가 확대<sup>130)</sup>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은 신제품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sup>131)</su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은 파업 종료에 따른 생산 정상화, 신차 출시<sup>132)</sup>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건설 경기 부진<sup>133)</sup>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sup>134)</sup>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고성능 반도체 생산 확대<sup>135)</sup>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AI 탑재 제품 출시에 따른 IT 수요 개선과 시장 점유율 하락<sup>136)</sup>의 영향이 엇갈리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업황 개선이 제약<sup>137)</sup>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전기장비는 신규 제품 출시 본격화<sup>138)</sup> 및 신규 공급계약 체결<sup>139)</sup>에도 불구하고 전방

124) 시장조사기관 DSCC는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되는 OLED 패널 출하량 전망치를 올해 1,000만대에서 670만대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Reuters는 애플 아이폰16의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도입이 지연되면서 판매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125) 현대트랜시스 서산공장은 노사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10.8~11.9일 중 생산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하여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126)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9.20일부터 전기로 가동 중단 및 제강 공정 설비보수를 개시하였으며 12.18일 완료할 계획이다.

127) 전 세계 에틸렌 생산설비가 2020~2023년 중 43백만톤 증가(2019년 대비 +23.5%)하였으나 에틸렌 수요는 17백만톤 증가(2019년 대비 +10.6%)에 그쳐 석유화학제품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128)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사업부, LG화학 석유화학부문,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등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은 3/4분기 중 영업손익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원재료와 생산제품 간 가격차, 달러/톤)가 10~11월 중 153달러(월평균 기준)로 전년동기(208달러)대비 26.6% 하락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129) 올해 1~9월 중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하여 2021년 109.0%, 2022년 56.9%, 2023년 32.5%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SNE리서치)

130) ESS는 신재생에너지를 저장·관리하여 이용 효율을 높여주는 장치로, 최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대규모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ESS전지 매출이 3/4분기 중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견조한 수요가 예상된다.(LG에너지솔루션 2024년 3/4분기 실적발표)

131) 지역 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 성과와 해외 시장 진출에 힘입어 항암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혈액제제 등 각 업체의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32)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대형 전기차 SUV 아이오닉9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미 조지아 공장에서 양산될 예정이다.

133) 국내 건설투자는 올해 하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2.9%, 내년 상반기 중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134) 글로벌 조강 과잉능력(조강 생산능력 - 조강수요)이 2023년 5.5억톤에서 2025년 5.9억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한국철강협회)

135) 삼성전자 온양천안공장 및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은 HBM 생산 관련 설비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 중 지역 내 고성능 반도체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36) 중국에서 IT제품 애국 소비 등 자국 제품 선호 추세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의 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對중국 제재품목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추가될 경우 국내 기업의 점유율에 반사이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산업연구원)

137) IMF는 10월 들어 국내 석유화학제품 주요 수출처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다.(중국 5.0 → 4.8 유로지역 0.9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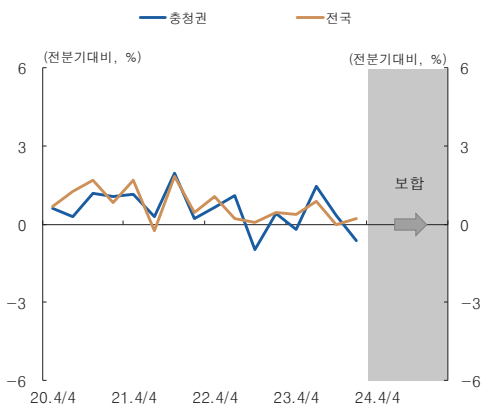
138)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은 12월 중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시리즈) 양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의 성장세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숙박·음식점업은 다양한 시민참여형 전시회 개최, 국제 컨벤션 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철도<sup>140)</sup> 및 항공<sup>141)</sup>을 포함한 여객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도소매업은 가계 소득 개선<sup>142)</sup>, 전분기와 유사한 외지인 방문객수<sup>143)</sup>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sup>144)</sup> 등으로 소폭 감소<sup>145)</sup>하였다.

부동산업은 중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임대시장이 위축<sup>146)</sup>되었으나 대전 도시철도 착공 발표<sup>147)</sup> 및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반등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sup>148)</sup>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금융여건이 완화된 가운데 지역 관광단지 개발 계획 발표<sup>149)</sup>, 지역 내 대규모 설비투자 진행<sup>150)</sup> 등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39) LG에너지솔루션은 10~11월 중 벤츠, 포드, 리비안 등의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2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 140) 10월 중 충청권 주요 철도역(대전, 서대전, 오송, 청주, 충주)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총 92,89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3%(6,284명) 증가하였다.
- 141) 10월 중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각각 2,396편, 38.9만명으로 추석연휴가 있었던 3/4분기(2,498편, 40.3만명, 월평균)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각각 4.7%, 3.2%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 142) 3/4분기 중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503.3만원 → 525.5만원)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0.3%, 이전소득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 143) 10월 중 외부방문자(외지인+외국인)의 충청권 방문객 규모(월평균)는 865.9만명으로 3/4분기(866.3만명)보다 0.04% 감소하였다.(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 144) 11월 중 충청권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년동월대비 하락(대전·세종 충남 98.3→97.3, 충북 99.2→98.9)하였다.(한국은행)
- 145) 10월 중 충청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기준)는 104.0(2020=100)으로 전월대비 7.9%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하였다.(통계청)
- 146) 3/4분기 중 충청권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하락(대전 -0.2%, 세종 -0.1%, 충북 -0.2%, 충남 -0.1%)하였다.(한국부동산원)
- 147) 대전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총 연장 37.8km, 총 사업비 1조 5,069억원)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12.11일)하였으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48) 10월 중 충청권 주택매매거래건수는 7,82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3/4분기 월평균보다 11.1%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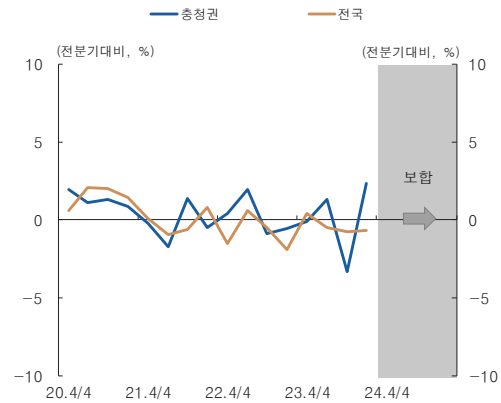
운수업은 여객수송<sup>151)</sup>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겠으나 항만물동량이 줄어들면서<sup>152)</sup>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매수심리<sup>153)</sup>가 지역별로 엇갈리며 보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 요

#### 민간소비 포함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는 3/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5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sup>154)</sup>가 늘며 증가하였으며, 준내구재는 의복, 스포츠 및 취미용품 소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대형병원 진료 감축에 따른 상비약 비축 수요 등으로 의약품

- 149) 대전 유성구는 2024년 10월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60억원을 투입하여 유성온천 부지에 유성온천문화체험관, 고급 호텔 및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거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유성투자개발은 조선포털엔리조트와 신세계프라퍼티와의 협약을 통해 최고급 스파 시설과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150) SK하이닉스는 작년 반도체 업황 악화 등에 따라 일시 중단(23.4월)하였던 청주 M15X 공장 건설을 올해 4월 말부터 재개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 151) 충남도와 서산시, 롯데관광개발은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여 대만 기류,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 코스의 국제 크루즈 상품을 개발하였다. 충남도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600명 규모의 상품을 판매중이며, 2025년 5월 19일 출항하여 25일 입항한다.(충남도청 해양정책과)
- 152) 10월 중 충청권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기준)의 화물처리실적은 총 19.6백만톤(R/T)으로 3/4분기(월평균 20.3백만톤(R/T))보다 3.7% 감소하였다.(국가물류종합정보센터)
- 153) 10월 중 충청권 부동산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충남과 충북은 상승(충남 102.1→104.4, 충북 101.4→103.6)한 반면 대전과 세종은 하락(대전 106.3→100.3 세종 100.3→98.9)하였으며 충청권 지역 모두 보험 국면(95 이상~115 미만)을 유지하였다.(국토연구원)
- 154) 10월 중 충청권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13,307대로 전분기(월평균 11,616대)에 비해 14.6% 증가하였다.(통계청)



소비가 증가<sup>155)</sup>하였으나 연료 등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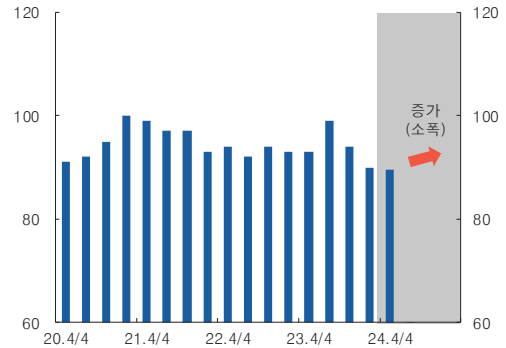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골프장 등 레저업종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세에 힘입어 외식업<sup>156)</sup>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화 및 서비스 소비는 물가 상승세 둔화<sup>157)</sup>, 금융여건 완화 등에 따른 실질 소비여력 개선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전기장비가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와 철강은 감소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은 보험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는 패키징 공정 및 고대역폭메모리 (HBM) 생산설비 구축<sup>158)</sup>, 반도체 소재 관련 신규투자<sup>159)</sup> 등으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친환경 소재 생산 공장 건립<sup>160)</sup> 등이 원활히 추진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전기장비는 전기차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ESS용 전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이차전지 생산 설비의 신·증설 투자<sup>161)</sup>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OLED 설비 반입이 계획대로 진행<sup>162)</sup>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이어갔

155) 3/4분기 전국 의약품 소매판매액은 약 7.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 집계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통계청)

156) 10~11월 중 충청권 외식업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8% 늘어 전분기(1.2%)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57) 10~11월 중 충청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기대비)은 전분기대비 둔화(대전 2.0 → 1.6, 세종 2.2 → 1.7, 충남 1.7 → 1.0, 충북 1.8 → 1.1)되는 모습이다.(통계청)

158) 삼성전자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설비를 12월 중 착공하며, 2027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159) 日 반도체 소재 기업 JSR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4/4분기 중 충북 청주에 메탈 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160) LG화학은 전지소재 친환경소재·신약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57%로 확대 추진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 중이다.

161)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증설을 위해 2026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4/4분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 자동차 및 부품은 자동차용 배터리팩 생산 업체의 공장 증설<sup>163)</sup>이 본격화되는 등 보험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철강은 업계 전반의 부진<sup>164)</sup>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AI 반도체 관련 첨단공정 투자<sup>165)</sup>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과 전기장비는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및 설비 증설<sup>166)</sup>과 차세대 배터리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sup>167)</sup>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차세대 공정 구축<sup>168)</sup>,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소재 생산 공장 건립<sup>169)</sup>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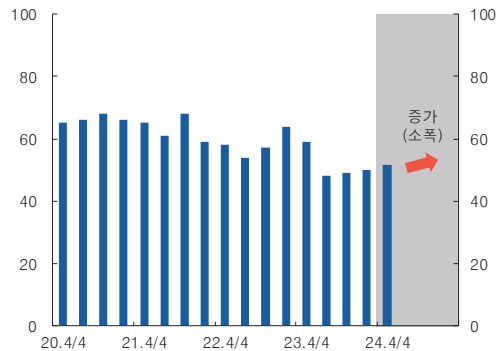
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패널 관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OLED 중심 사업 재편<sup>170)</sup> 등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4/4분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철강은 전방산업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

입 증가 등으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투자만 진행될 것으로 보여 4/4분기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162) 삼성디스플레이는 실적 발표 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8.6세대 IT용 OLED 생산시설의 주요 설비 반입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부터 해당 시설에서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163) 글로벌 자동차 부문 100대 공급업체 중 하나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독일)는 올해 하반기부터 당진 송산 외국인투자지역에 전기차용 배터리팩 생산 공장(면적 5,397㎡) 증설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 말부터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164) 포스코가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1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한 데 이어, 현대제철은 11월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 등의 영향으로 포항2공장 폐쇄를 결정하였다.

165) 삼성전자는 2023년 4월 반도체 업황 악화로 낸드플래시 공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바 있으나, 2024년 4월 동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총 20조원을 투자하여 HBM 생산시설로 변경 중이다.

166) SK온은 서산시 오토밸리에 3공장(약 4.4만㎡) 증설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완공 후 2028년까지 순차적인 설비 교체를 통해 생산 능력을 연간 14GWh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167) SK온은 서산시 오토밸리 2공장에 구축된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설비를 개조하고 추가로 설비를 투자하여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12월 1일 장비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12월 중 정식 구매주문서(PO)가 나올 예정이다.

168) 충남 서산시가 2024년 10월 8,6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2027년까지 LG화학 대산공장에 30만톤 규모의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169) 원익머트리얼즈는 11월 중 충북 청주에 산업용 특수가스 제조 공장 신설을 위해 2027년까지 약 1,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1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170)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세계 최초 8.6세대 IT OLED 생산 공장 A6 투자를 공식화하며 기존 2026년 양산계획이었던 것을 앞당겨 2025년 말까지 4.1조원을 투자해 OLED 패널을 양산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4년 3월부터 A6라인의 증착기 반입을 시작으로 설비를 구축 중이다.

민간부문은 건설공사비 상승세 지속<sup>171)</sup>과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에도 비주거용 착공면적이 늘어나면서<sup>172)</sup> 소폭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확대<sup>173)</sup>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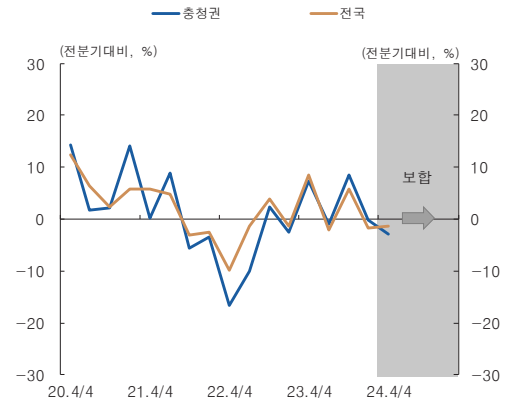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미분양주택<sup>174)</sup>과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sup>175)</sup>이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수주액<sup>176)</sup> 감소세와 부동산PF 부실 우려<sup>177)</sup>가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설수주 부진<sup>178)</sup>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수출 보합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전기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는 고성능 메모리반도체의 대만 수출<sup>179)</sup>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주요 수요처인 베트남 수출 부진<sup>180)</sup>이 지속되면서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제품가격 하락세<sup>181)</sup>가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전기장비는 배터리 업체 간 경쟁 심화<sup>182)</sup>가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sup>183)</sup>하였다.

171) 10월 중 건설공사비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0.9%로 3/4분기(1.6%)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협회)

172) 10월 중 충청지역 누적(12분기) 착공면적은 3/4분기(월평균)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며, 주거용은 1.4% 감소하였고 비주거용은 2.6% 증가(상업용 -4.1%, 공업용 +14.6%)하였다.(국토교통부)

173) 10~11월 중 충청권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 규모(월평균)는 3/4분기에 비해 증가(17.0%)하였다.(지방재정365)

174) 10월 말 충청권 미분양주택 수(8,005호)는 대전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3/4분기(월평균 9,854호)에 비해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175) 3/4분기 중 충청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였다.(대전 15.4 → 14.6, 세종 25.7 → 23.2, 충남 14.8 → 13.3 및 충북 20.1 → 19.1)

176) 10월 충청지역 민간부문 누적(12분기) 건설수주액은 3/4분기(월평균)에 비해 0.1% 감소하였다.(통계청)

177) 롯데건설은 최근 대전 도안지구 오피스텔(1,041실 및 생활시설) 개발사업의 본 PF 전환 실패가 지속됨에 따라 후순위 대출보증 약 300억원(브릿지론)의 손실을 보며 시공권을 포기하였다.

178) 10월 충청지역 공공부문 누적(12분기) 건설수주액은 3/4분기(월평균)에 비해 1.4% 감소하였다.(통계청)

179) 10~11월 중 충청권 對대만 반도체 수출(월평균)은 3/4분기 대비 34.5%, 전년동기대비 254.2%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0) 충청권 평판디스플레이의 對베트남 수출(월평균)은 10~11월 중 3/4분기 대비 14.8%, 전년동기대비 41.0%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1) 10~11월 중 에틸렌 가격(달러/톤, 월평균)은 3/4분기 대비 1.2%, 전년동기대비 5.6% 하락하였다.(산업통상자문부)

182)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24년 1~9월 중 20.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3.4%p 하락하였다.(SNE리서치)

183) 10~11월 중 충청권 이차전지 수출(월평균)은 3/4분기 대비 21.1%, 전년동기대비 47.6%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동차 및 부품은 파업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부품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철강은 주요 수요처인 중국과 북미 지역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 동남아 등의 지역에서 수출이 호조<sup>184)</sup>를 보이며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HBM 등 고성능 반도체의 단가 상승<sup>185)</sup>이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sup>186)</sup>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확대<sup>187)</sup>, 전방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전기장비는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 정체, 중국산 배터리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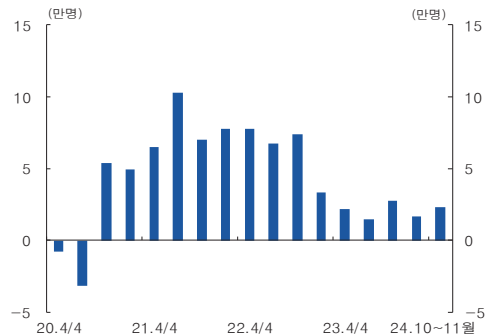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탑재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이 심화<sup>188)</sup>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자동차 및 부품은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둔화<sup>189)</sup>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3만명 늘어나며 3/4분기(+1.7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증가 전환되고 제조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농업, 임업 및 어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상용근로자가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임시근로자는 증가폭이 축소되며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충남의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충북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대전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84) 충청권 철강제품 수출(전년동기대비)은 10~11월 중 對중국 4.1%, 對북미 10.1% 감소하였으나 對유럽 73.1%, 對동남아 91.4%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5) 시장조사기관 TrendForce에 따르면 향후 범용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부진이 예상되나 HBM은 AI 관련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186)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1~10월 중 9,189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3.3% 증가하였다.(스틸데일리)

187) 중국은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 이후 석유화학 설비투자를 크게 늘려왔으며 2025년에는 대부분의 기초유분과 중간원료의 자급률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경제연구원)

188) 삼성디스플레이의 글로벌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은 2022년 58.8% → 2023년 45.9% → 2024년 41.3%로 하락할 전망이다.(Om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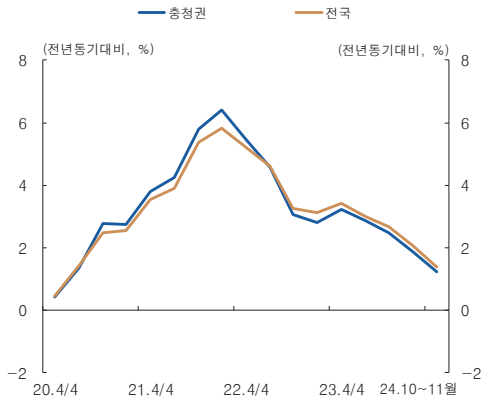
189) 내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올해에 이어 1~3%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자동차연구원)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여 3/4분기(1.9%)보다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상품 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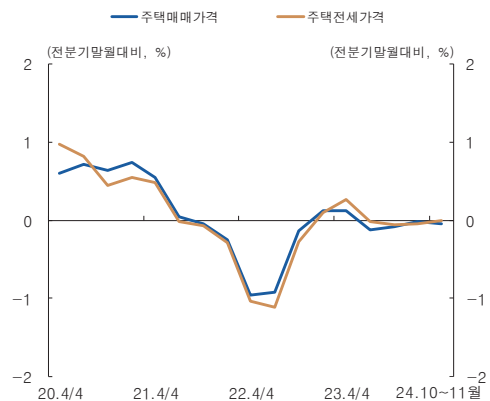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2) 2021.1월부터 세종 포함  
자료: 통계청

###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 지속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5% 하락하며 3/4분기(-0.02%)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상승폭이 축소(0.03% → 0.01%) 된 가운데 대전은 전분기와 동일한 하락폭(-0.07% → -0.07%)을 보였다. 한편, 세종은 하락폭이 축소(-0.26% → -0.24%)되었으나 충남은 하락 전환(0.00% → -0.05%)되었다.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1% 하락하며 3/4분기(-0.04%)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상승 전환(-0.12% → 0.05%)되고 충북은 상승폭이 확대(0.01% → 0.04%)되었으며 대전과 충남은 하락폭이 축소(각각 -0.13% → -0.07%, -0.03% → -0.02%)되었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4. 호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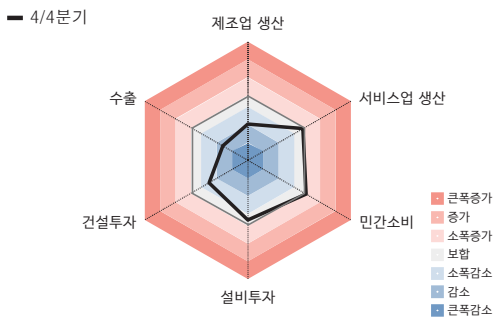
### (1) 개 황

#### 호남권 경기 소폭 약화

4/4분기 중 호남권 경기는 3/4분기보다 소폭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3/4분기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3/4분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나, 전세가격은 3/4분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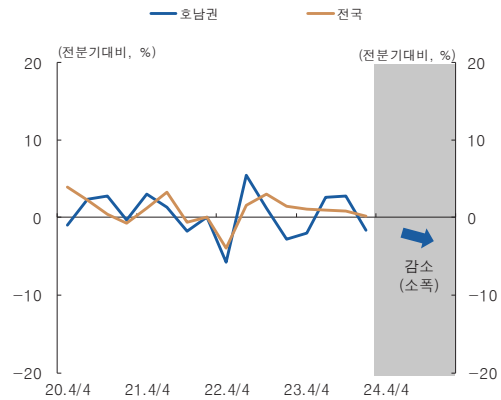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및 석유정제가 소폭 감소하였다. 조선과 반도체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회색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는 일부 협력업체 파업<sup>190)</sup>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일부 생산라인 가동 중단<sup>191)</sup>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부진<sup>192)</sup>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정제는 글로벌 원유수요 둔화 전망<sup>193)</sup> 등으로 유기<sup>194)</sup>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며 소폭 감소하였다.

190)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현대트랜시스는 10.11일~11.9일 중 총파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산업과 특근을 중단한 상황이다.

191) 롯데케미칼은 2024.12월 여수 제2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192) 건설업 업황실적BSI(전국 기준, 기간 중 평균): 2024년 1/4분기 53 → 2/4분기 50 → 3/4분기 51 → 10~11월 48

193) 2025년 전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백만배럴/일, OPEC): 6월 106.31 → 9월 105.99 → 11월 105.57

194)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기간 중 평균, USD): 2024년 2/4분기 85.1 → 3/4분기 78.6 → 10~11월 73.8

조선은 신조선가가 상승세<sup>195)</sup>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가 지속<sup>196)</sup>되면서 전분기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 부문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 등으로 낮은 생산량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협력업체 파업 종료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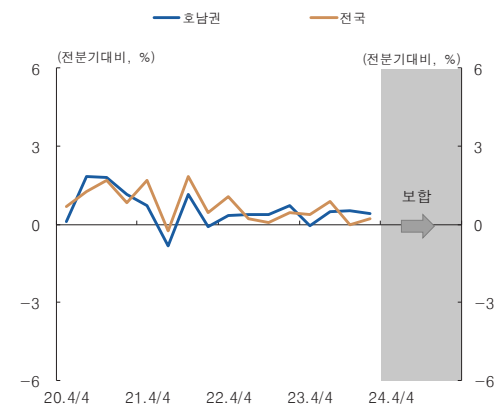
석유정제는 국제유가 불확실성<sup>197)</sup>,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양호한 수주 상황<sup>198)</sup>이 지속되며 현재의 높은 생산량을 유지할 전망이다. 철강은 국내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반도체 생산은 비메모리 부문 수요부진이 지속되며 낮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지속, 해상 운임 비용 상승 등으로 현재의 낮은 생산량을 유지할 전망이다.

## 서비스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업이 증가하고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9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예술·스포츠·여가업은<sup>199)</sup> 골프장 이용객 증가, 광주비엔날레 개최<sup>200)</sup> 등으로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증가하였다. 운수업은 항만 물동량<sup>201)</sup>과 항공 화물량<sup>202)</sup>이 증가하고, 항공 여객수<sup>203)</sup>가 늘어나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195) 조선사들이 높은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가격 협상 우위를 확보하면서 신조선가 상승세(2020년 127.3 → 2021년 141.1 → 2022년 159.6 → 2023년 171.1 → 2024년 1~11월 186.3, 기간 중 평균 신조선가지수)가 이어지고 있다.  
 196) 조선은 선박 수주 후 설계를 거쳐 실적이 발생하는 건조 및 인도까지 2년의 시차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 2022년 이후 수주한 고가 선박의 건조량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HD현대사호 영업이익 2023년 1/4~3/4분기 누적 1,944억원 → 2024년 1/4~3/4분기 누적 5,395억원)  
 197) 지정학적 리스크(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상존, OPEC+ 감산 의사결정 향방 등 향후 유가 관련 요인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198) HD현대사호는 2024.10월 말 기준 약 62억달러의 선박 수주를 기록하여 연간 수주 목표(32억달러)를 초과 달성하였다.  
 199) 10~11월 중 호남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분기대비 14.2% 증가하여 3/4분기(-10.6%)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200) 15회 광주비엔날레는 2024년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 간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은 약 70만명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201) 10월 중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17.2만TEU으로 3/4분기(16.7만TEU, 월평균)대비 3.2% 증가하였다.(해양수산부)

부동산업은 아파트 준공물량<sup>204)</sup>이 증가하였으나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sup>205)</sup>이 줄어들면서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sup>206)</sup>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소매업은 낮은 가계수입전망으로<sup>207)</sup> 소비심리가 더디게 회복되면서<sup>208)</sup>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은 수출 물동량 회복이 지속되고 여행 수요<sup>209)</sup>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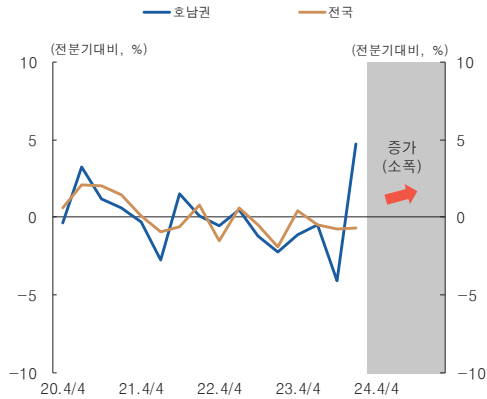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sup>210)</sup>되면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원금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심리 약세도 이어지면서<sup>211)</sup> 감소할 전망이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증가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소비도 증가하면서 3/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가전<sup>212)</sup> 소비 감소에도, 가구<sup>213)</sup> 및 자동차<sup>214)</sup> 소비가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의복<sup>215)</sup>

202) 10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운송화물은 1.6천톤으로 3/4분기(1.4천톤, 월평균)대비 14.4%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203) 10월 중 호남권 공항(광주, 여수, 무안, 군산)의 월평균 여객 수는 29.6만명으로 3/4분기(27.7만명, 월평균)대비 6.9%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204) 10월 중 호남권 아파트 준공물량은 총 4,342호로 전년동기(1,851호) 대비 1.4% 증가하였다.

205) 10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16.4천호로, 3/4분기(16.8천호, 월평균)대비 2.3% 감소하였다.

206) 10~11월 중 호남권 외식물가지수는 121.8로 상승세(2024년 2/4분기 120.3 → 3/4분기 121.0 → 10~11월 121.8)를 유지하였다.

207) 10~11월 중 광주전남과 전북의 가계수입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93.5, 92.5로 3/4분기 평균대비 광주전남은 2.2p, 전북은 0.5p 하락하였다.

208) 10~11월 중 광주전남과 전북의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93.0, 92.4로 3/4분기 평균대비 광주전남은 1.3p, 전북은 3.2p 하락하였으며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다.

209) 2024년 12월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 대만 등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하였다.

210) 10~11월 중 광주전남과 전북의 향후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67.5, 72.0으로 3/4분기 평균대비 광주전남은 3.2p, 전북은 3.0p 하락하였다.

211) 10월 중 호남권 주택매매수급동향지수(100미만시 공급>수요)는 94.9로 3/4분기(94.7, 월평균)에 이어 100을 하회하였다.

212) 10~11월 중 호남권 가전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하여 3/4분기(2.9%)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등이 감소하였으나, 레저용품<sup>216)</sup> 등이 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내구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용 연료<sup>217)</sup>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업태별로 보면, 경기 부진으로 고객 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백화점 매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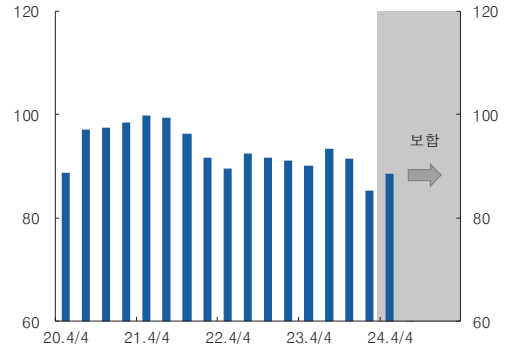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이용이 증가<sup>218)</sup>하고, 의료소비<sup>219)</sup> 및 여행 관련 지출<sup>220)</sup>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전기·가스업은 LNG 관련 인프라 투자<sup>221)</sup>가 계획대로 추진되며,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가 지속<sup>222)</sup>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기장비<sup>223)</sup>는 이차전지 관련 투자가 집행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석유화학

- 213) 10~11월 중 호남권 가구 구입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하여 3/4분기(3.2%)에 이어 증가 흐름이 지속되었다.
- 214) 10~11월 중 월평균 호남권 신규 자동차등록대수는 14.9천대로 3/4분기(12.8천대, 월평균)대비 17.4% 증가하였다.
- 215) 10~11월 중 호남권 의복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여 3/4분기(-3.1%)에 이어 감소 흐름이 지속되었다.
- 216) 10~11월 중 호남권 레저용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여 3/4분기(-5.0%)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 217) 10월 호남권 휘발유 소비량은 92.8만배럴로 3/4분기(85.7만배럴, 월평균) 대비 8.2% 증가하였다.
- 218) 10~11월 중 호남권 레저업소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여 3/4분기(6.1%)에 이어 증가 흐름이 지속되었다.
- 219) 10~11월 중 호남권 의료기관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여 3/4분기(8.3%)에 이어 증가 흐름이 지속되었다.
- 220) 10~11월 중 호남권 여행 관련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40.3% 증가하여 3/4분기(82.8%)에 이어 증가 흐름이 지속되었다.
- 221) ㈜동북아엘엔지히브티미널(지분: ㈜한양 60%, GS에너지 40% / 위치: 여수 묘도 / 착공: 2024년 9월 / 완공: 2027년 말)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저장탱크, 수송관 등 LNG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광양만권 산단에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를 공급할 계획이다.
- 222)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2025년 상반기 중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2024년 7월부터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를 집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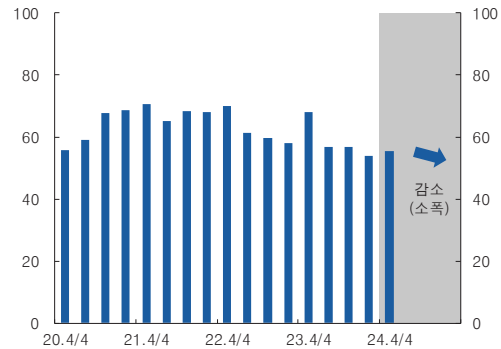
은 기존 계획<sup>224)</sup>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석유정제<sup>225)</sup>와 철강<sup>226)</sup>도 기존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환경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화학은 진행 중인 설비투자가 4/4분기 중 마무리되며 감소할 예정이다. 여타 업종에서는 기계화된 투자 집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은 착공면적이 줄어들고<sup>227)</sup> 분양시장 부진도 이어지면서<sup>228)</su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SOC 예산집행액 감소<sup>229)</sup>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3)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까지 6,800억원을 투자하여 5만여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224) LG화학은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재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40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22만톤 규모의 ABS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롯데제스화학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500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 중 C4 유분공장을 준공하였고, 2024년 중 페놀/BPA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225)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30억원을 투자하여 5만톤 규모의 페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226)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하여 250만톤 규모의 탄소저감 강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227) 10월 중 호남권 12분기 누적 착공면적은 3/4분기 대비 4.5% 감소하였다.

228) 10월 중 호남권의 미분양주택은 7,752호로(2024.1/4분기 8,134호 → 2/4분기 8,606호 → 3/4분기 8,083호, 월평균)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29) 10~11월 중 호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예상액(월평균)은 3,78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공공부문에서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줄어들면서<sup>230)</sup>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에서는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으로 건설경기가 부진하며 감소<sup>231)</sup>할 전망이다.

##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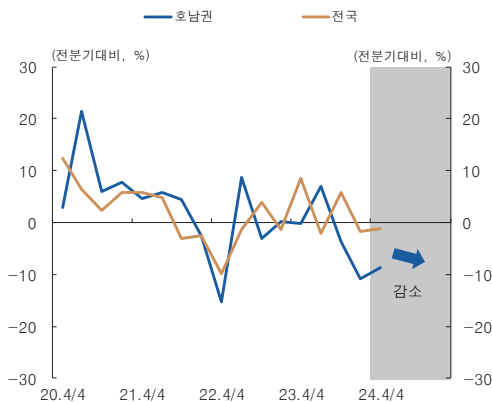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3/4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조선이 큰 폭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가 감소하고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와 철강이 소폭 감소하였다.

석유정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감소하였다.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자동차는 일부 협력업체 파업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철강은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 지연<sup>233)</sup>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인도예정물량이 늘면서<sup>234)</sup>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협력업체 파업 종료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정제 등 여타 업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조선은 업체 계약 일정에 따라 선박 인도가 늘면서<sup>232)</sup> 큰 폭 증가하였다.

230) 10월 중 호남권 공공부문 12분기 누적 건설수주액은 3/4분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231) 10월 중 호남권 민간부문 12분기 누적 건설수주액은 3/4분기 대비 8.9% 감소하였다.

232) 4/4분기 중 호남권 선박 인도예정물량은 48.8만CGT로 3/4분기(43.0만CGT)대비 13.5% 증가할 전망이다.(Clarkson)

233) 전세계 철강 수요(억톤, 세계철강협회): 2021년 18.4 → 2022년 17.8 → 2023년 17.7 → 2024년\* 17.5

234) 25.1/4분기 중 호남권 선박 인도예정물량은 50.1만CGT로 24.4/4분기(48.8만CGT) 대비 2.6% 증가할 전망이다.(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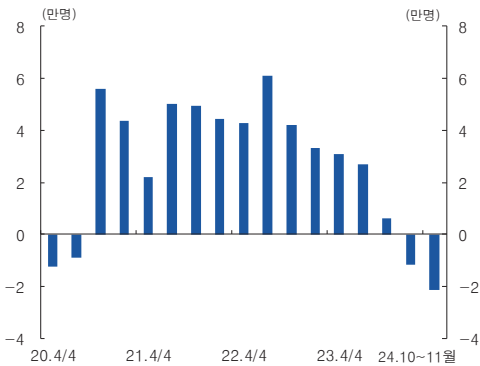
## (4) 고용

###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66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1만명 감소하여 3/4분기(-1.2만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sup>235)</sup>이 증가 전환되었으나 농림어업<sup>236)</sup>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서비스업<sup>237)</sup>은 감소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감소하였으나 상용근로자가 증가 전환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전북은 감소 전환되었고 광주에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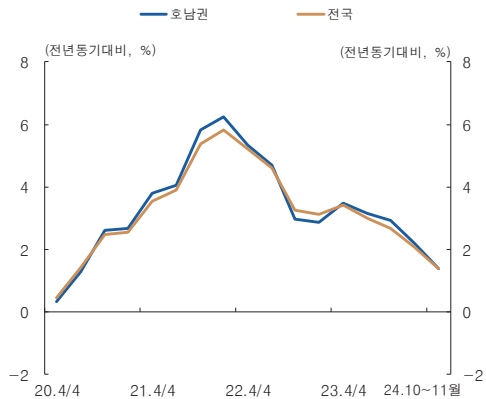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1.4% 상승하여 3/4분기(2.2%)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석유류<sup>238)</sup> 가격이 국제유가 반영<sup>239)</sup>으로 하락 전환되었고 농축수산물<sup>240)</sup>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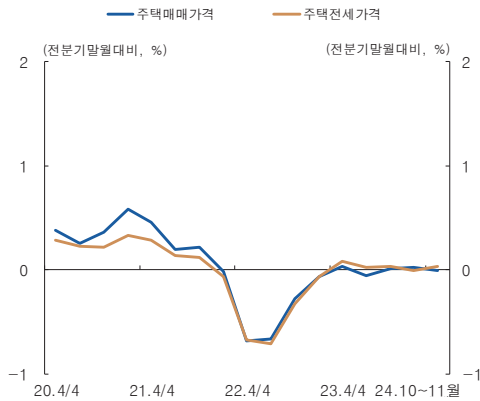
- 235) 10~11월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5만명 증가하여 3/4분기(-0.2만명)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236) 10~11월 중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3만명 감소하여 3/4분기(-2.3만명)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237) 10~11월 중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1만명 감소하여 3/4분기(+1.4만명)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다.  
 238) 10~11월 중 석유류는 전년동기대비 8.2% 하락하여 3/4분기(0.5%)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239) 10~11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5.3% 하락하여 3/4분기(-9.4%)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40) 10~11월 중 농축수산물은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하여 3/4분기(3.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전세가격 상승 전환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 월대비 0.01% 하락하여 3/4분기(0.02%)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광주에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10~11월 중 전세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0.03% 상승하여 3/4분기(-0.01%)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광주는 상승 전환되었으나 전남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5.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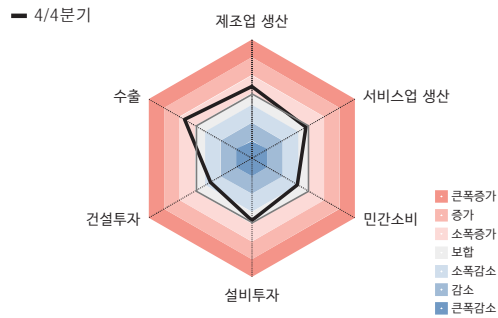
### (1) 개황

#### 대경권 경기 소폭 개선

2024년 4/4분기 중 대경권 경기는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민간소비,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포함 수준이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전분기보다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와 유사한 하락폭을 나타내었고,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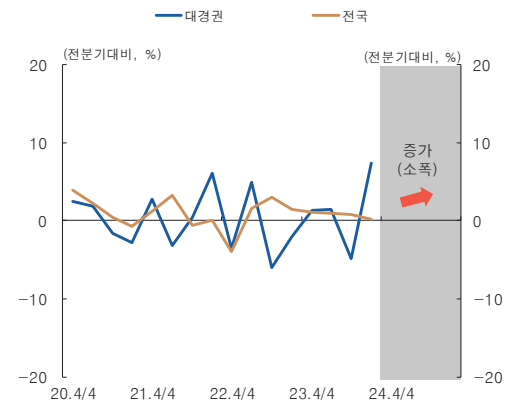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산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3/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휴대폰 및 부품, 디스플레이가 증가하였으며 철강, 기계장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 섬유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휴대폰 및 부품은 갤럭시 폴더블폰의 판매 부진<sup>241)</sup>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및 갤럭시 판매량 증가<sup>242)</sup>로 부품 위주로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패널의 견조한 성장세<sup>243)</sup>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241) 2024년 3/4분기 전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하였는데, 삼성전자 갤럭시Z6 시리즈 판매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갤럭시Z6 시리즈 판매 부진으로 2024년 3/4분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4%p 상승하고 삼성전자는 4%p 하락하였다.

242) 아이폰 7~9월 매출은 아이폰16 시리즈 출시(9.20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5.52% 증가하여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였다. 아이폰16 시리즈 판매는 4/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갤럭시S24 시리즈의 판매량도 시탑재 갤럭시S24 FE 신제품이 해외에 조기 출시(10.3일)되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3)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차량용 OLED 시장규모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39.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은 건설투자 부진, 중국산 저가 철강 공급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는 첨단 산업 관련 투자 감소와 국내외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아이오닉9 출시<sup>244)</sup> 등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sup>245)</sup> 등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섬유는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 및 부품은 아이폰의 견조한 성장세, 갤럭시S25 신제품 출시(2025년 1월 출시예정)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비는 산업용 로봇 및 부품 수출 개선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철강재 수입 지속,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섬유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가동률 감소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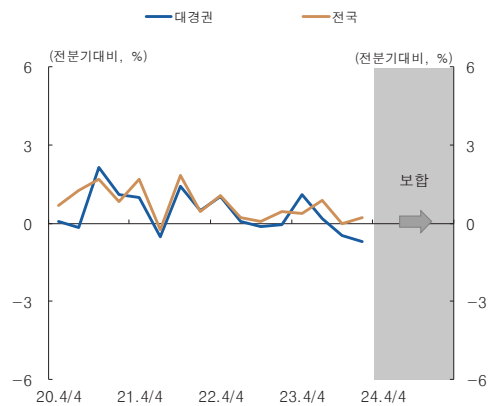
디스플레이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sup>246)</sup>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부품은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수요 증가<sup>247)</sup>

에도 불구하고 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은 소폭 증가하였고, 도소매업 및 운수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0)</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숙박·음식점업은 개인 투숙객<sup>248)</sup>과 단체 행사 매출이 모두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sup>249)</sup> 소폭 증가하였다.

244)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2024년 4/4분기부터 2025년까지 9종의 신형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오닉9는 10월 3일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양산되고 있다.

245)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는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달간 파업을 진행하였다. 파업으로 코나를 생산하는 1라인을 포함해 울산 현대차 1공장 전체가 11월 5~8일 중 가동을 중단했다.

246)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기술초격차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11월 8일 LG디스플레이는 스트레처를 디스플레이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는데, 스트레처를 디스플레이는 늘리기, 접기, 비틀기 등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프리폼 디스플레이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247)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차량 시장규모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평균 9.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까지 전세계에 판매하는 모든 차종에 대해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48) 10월 중 경주 보문관광단지 숙박객 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로 전분기(-7.5%) 대비 증가 전환하였다.

도소매업은 내수 부진과 고온에 따른 겨울철 제품 판매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수출 둔화로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개선과 설명절 영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기대와 공급물량 축소<sup>250)</sup>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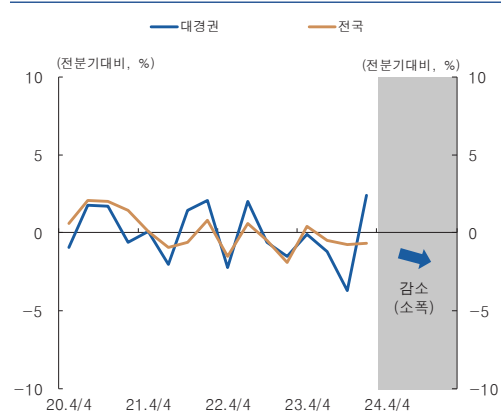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은 최근 회복세이나 APEC 행사 개최(25.11월)를 위한 개보수 공사<sup>251)</sup> 진행 등으로 영업 가능시설이 감소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준내구재는 의복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sup>252)</sup>하였으며, 비내구재는 가격이 크게 높아진 차량용 연료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sup>253)</sup>하였다. 내구재는 가전 등의 판매 부진, 승용차 소폭 증가<sup>254)</sup> 등이 혼재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249) 10월 중 대구경북의 아파트, 주택 월평균 거래량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5.3%, 10.8% 증가하였고, 토지 월평균 거래량은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하였는데, 아파트 및 주택 거래량은 전분기대비 증가 전환하였고, 토지 거래량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250) 10월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물량은 각각 8,506호, 7,263호로 17개 시도 중 대구가 가장 높고, 경북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4분기 신규공급물량은 높은 수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1) 2025년 1/4분기 중 일부 업체는 전체 객실의 약 25% 수준까지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어 공사기간 중 투숙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52) 2024년 10~11월 중 대경권 의복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3% 늘어 전분기(-0.6%)대비 증가 전환하였다.

253) 2024년 10~11월 중 대경권 연료판매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7% 줄어 전분기(+0.0%) 대비 감소 전환하였다.

254) 2024년 10~11월 중 대경권 월평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9,669대로 전년동기(9,407대, 월평균)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공휴일 등으로 휴가가 잦아지면서 여행, 레저업소 및 숙박 관련 지출이 증가<sup>255)</sup>하였으나 그 외 도소매, 음식업 등은 소폭 감소<sup>256)</sup>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4/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전망이 다소 높아지고 소비심리 역시 반락<sup>257)</sup>하였으나 명절을 앞두고 업체들의 판촉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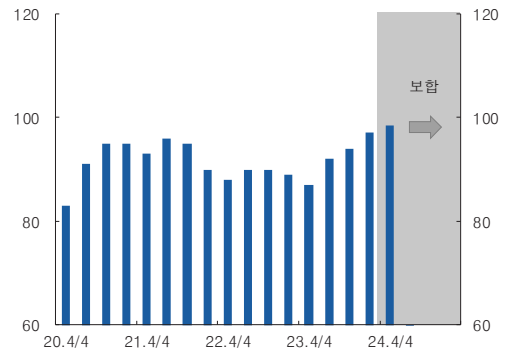
## 설비투자 포함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이차전지 산업에서 투자를 보류하는 등 포함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소재·부품<sup>258)</sup> 및 섬유<sup>259)</sup> 관련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방산<sup>260)</sup> 산업에서도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sup>261)</sup>에서는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투자 시기를 이연하고 있다. 그 외 자동차부품, 철강 등 나머지 업체에서도 설비투자를 보류하거나 기존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55) 2024년 10~11월 중 대경권 여행, 레저업소 및 숙박 관련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3.2%, 10.5%, 3.3% 늘어 전분기(+19.9%, -1.4%, -4.0%)보다 크게 개선되었다.

256) 2024년 10~11월 중 대경권 유통업 및 요식업소 신용카드 결제액(신한·하나·농협 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 1.8% 증가하여 전분기(+1.2%, +3.3%)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257) 2024년 10~11월 대경권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월평균 105.9로 7월(107.4) 이후 재차 낮아지고 있으며 물가수준전망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월평균 138로 7월(135) 이후 반등하였다.

258) 이수페타시스는 대구 달성산단에 제1~4공장에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AI) 가속기 관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고다층 인쇄회로기판(MLB)을 생산하는 제5공장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8.22) 28년말을 목표로 4,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259) 도레이첨단소재는 IT필름과 아라미드섬유 등 생산량 확대를 위한 1,300억원 규모의 구미5공장 증설을 10월 착공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중인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공장 증설도 내년까지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260) LIG넥스원은 구미사업장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00억원 규모 투자를 통해 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261) 에코프르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전구체, 양극재 등 공장 증설을 위해 총 5년간 5.5조원을 투자하고 1~3캠퍼스에 이어 4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업황 부진이 장기화된 영향 등으로 약 5천억원 규모로 제4캠퍼스에 증설중인 양극재 공장의 완공을 올해 말에서 2년 뒤인 2026년 12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항 양극재 공장의 가동시점을 3개월 앞당겨 4/4분기중 가동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포항 양극재 공장의 장비 공급을 올해 중에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 수준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sup>262)</sup> 산업에서는 생산능력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추가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차전지는 소재 및 배터리 관련 기술 고도화,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를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sup>263)</sup>

숙박 서비스업에서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11월 예정)될 APEC 행사를 대비하여 대규모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sup>264)</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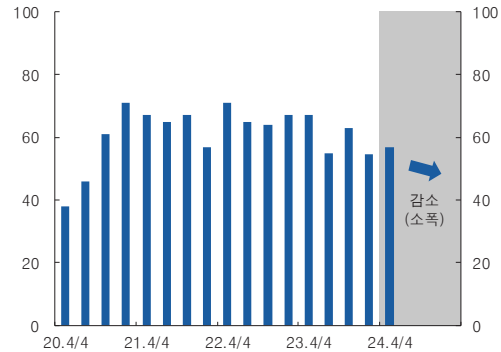
그 외 업종에서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은 연말을 앞두고 지자체 SOC 사업 집행<sup>265)</sup>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민간부문은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sup>266)</sup>를 이어갔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은 내년 SOC 예산 긴축<sup>267)</sup> 등으로 연초에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은 금리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분양물량과<sup>268)</sup> 공실률 부담으로 수주 부진<sup>269)</sup>이 이어져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62) LG넥스원은 기존 구미사업장에 무기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3) 전기차 포비아 등으로 인한 전방산업의 수요와 변동성 등을 반영하여 일부에서는 공장 증설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어 앞으로도 투자 속도를 조절하며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64) 2025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앞서 보문관광단지내 위치한 호텔을 중심으로 내년 1/4분기중 정상용 숙소(PRS)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숙박시설 정비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5) 10~11월 중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지출액(월평균)은 4,253억원으로 전분기(4,007억원)보다 6.1% 증가하였다.(지방재정365)

266) 10월 중 대경권 건축착공면적은 전분기(월평균)보다 18.7% 감소하였으며(주거용 -76.2%, 비주거용 +7.8%), 36개월 누적 착공면적도 감소 추세이다.(3/4분기 -7.6% → 10월 -4.1%)

267) 정부 SOC 예산은 2024년 26.4조원(본예산)에서 2025년 25.5조원(정부 예산안)으로 3.6% 감소하였으며, 공공주택 관련 예산도 18.1조원에서 14.9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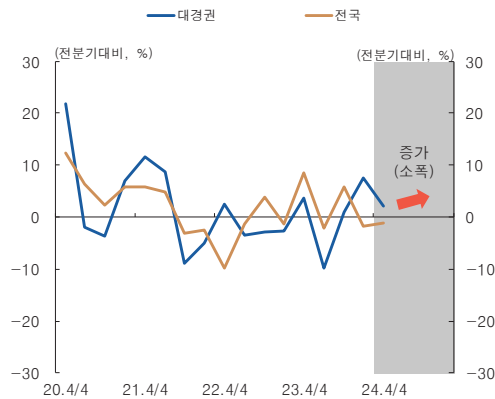
268) 10월 대경권 미분양주택 물량은 15,769호(대구 8,506호, 경북 7,263호)로 전국의 24.0% 수준이며, 대구와 경북 모두 3/4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69) 10월 중 대경권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6,731억원으로 전분기(월평균)보다 12.3% 감소하였으며 36개월 누적 수주액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3/4분기 -5.3% → 10월 -4.0%)

## 수출 소폭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휴대폰 및 부품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및 부품이 전분기보다 큰 폭 증가하고 기계장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철강은 소폭 감소, 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큰 폭 감소하였다. 섬유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휴대폰 및 부품은 글로벌 신제품 관련 부품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국산 완제품 수출이 해외에 선출시된 영향<sup>270)</sup>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큰 폭 증가<sup>271)</sup>하였다. 기계장비는 미국 등 주요국 장비 수요가 회복되면서 소폭 증가<sup>272)</sup>하였다.

철강은 수출물량 증가에도 제품단가 하락으로 소폭 감소<sup>273)</sup>하였다. 디스플레이는 기저효과 및 패널가격이 하락하면서 감소<sup>274)</sup>하였다.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전기차 수요 정체가 장기화되고 원료가격 하락 등<sup>275)</sup>으로 수출단가도 낮아지면서 감소<sup>276)</sup>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업체간 경쟁 심화에도 미국의 견조한 수요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섬유는 글로벌 의류 소비가 위축되고 섬유원료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섬유사와 섬유제품이 반등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휴대폰 및 부품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의 하방 압력으로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부품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완성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 여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70) 10.3일 삼성전자는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S24 FE 신제품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예정보다 조기 출시하였으며(국내에는 11.1일 출시), 10.25일에는 Z폴드 SE 모델을 출시하였다. 보급형 AI폰과 프리미엄 폴더블폰 상품군이 확대되면서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지로의 휴대폰 완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271) 2024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휴대폰 및 부품 수출액(일평균 전분기대비)은 큰 폭 증가(3/4분기 +83.4% → 10~11월 중 +20.3%)하였다. 완제품 수출(-3.3% → +52.6%)이 국산 신제품 출시 등으로 확대되었고, 휴대폰부품(+147.1% → +11.0%) 수출도 아이폰16 신제품 출시(9.20일) 관련 카메라모듈 등 공급이 이어지며 전분기보다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다소 축소되었다.
- 272) 2024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기계장비 수출액(일평균 전분기대비)은 미국이 기타기계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3/4분기 -33.7% → 10~11월 중 +15.2%) 5.3% 증가하였다.
- 273) 대경권 철강 수출물량(일평균 전분기대비)은 지역 주요사업장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증가로 전환하였으나(3/4 +18.7% → 10~11월 +7.1%), 최근 철강제품 수출가격은 하락하고 있다.(24.2/4 -4.6% → 3/4 -2.9% → 11월 -3.7% 전분기대비)
- 274) 2024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디스플레이 수출액(일평균 전분기대비)은 OLED 제품의 부진(-38.7%)으로 17.1% 감소하였다.
- 275) 2023년부터 양극재 주요 원재료인 리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24.3/4 -26.2% → 4/4 -3.5%, 전분기대비,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중장기적으로 업체들은 양극재 생산·판매량 목표를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고 있다.(지역 주요업체 컨퍼런스콜)
- 276) 2024년 10~11월 중 대구경북지역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 기준) 수출액(일평균 전분기대비)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24.1/4 -9.1% → 2/4 +4.6% → 3/4 -20.3% → 10~11월 -11.2%)

휴대폰 및 부품의 경우 국산 프리미엄폰 출시<sup>277)</sup>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장비는 주요국 장비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의 시장점유 및 수주량이 확대되고 있어 차량용 제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차전지소재(기타정밀화학원료)는 미국의 친환경 정책 축소 등으로 인한 전방산업 수요 감소<sup>278)</sup>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섬유는 글로벌 수요 부진 및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철강시황 회복 기대 및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건설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 (4)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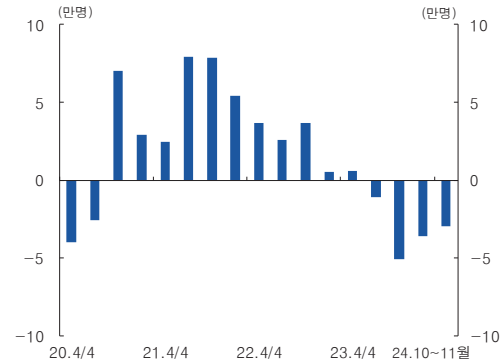
### 취업자수 감소폭 축소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0만명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3/4분기(-3.6만명)에 비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은 감소 전환하였고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나 비임금근로자<sup>279)</sup>의 감소폭은 확대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277) 2025년 1월중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시폰인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3개 모델에 더해 슬림 모델이 2025년 1/4분기중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278)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친환경 정책 축소를 예고하여 향후 미국내 전기차 수요가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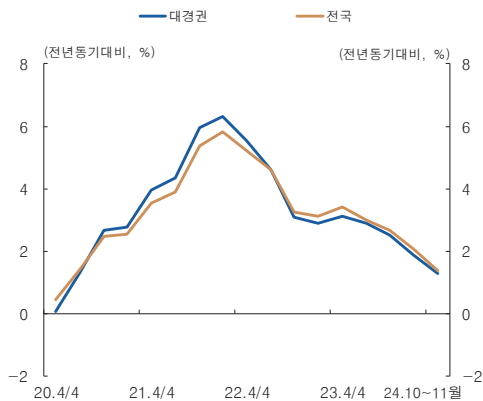
279) 10~11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4만명, 1.3만명 각각 감소하였다.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3% 상승하여 3/4분기(1.9%)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sup>280)</sup>과 전기·가스·수도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농축수산물<sup>281)</sup>과 내구재의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며 석유류<sup>282)</sup>는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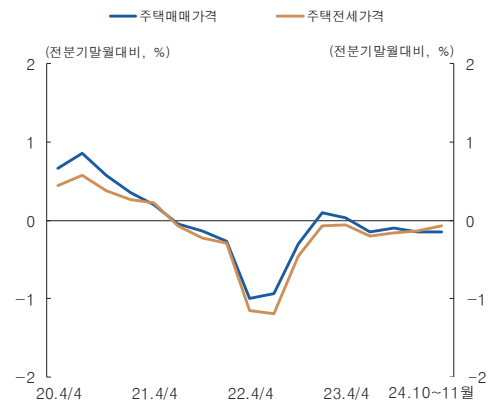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달성군, 달서구 및 동구 위주로 0.29% 하락하였다.<sup>283)</sup> 경북은 구미, 경산, 김천 등에서 하락<sup>284)</sup>하였다.

한편 10~11월 중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7% 하락<sup>285)</sup>하여 3/4분기(-0.14%)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0.17%)는 남구, 달서구 및 북구를 중심으로, 경북(-0.01%)은 구미, 칠곡 및 경주를 중심으로 각각 하락하였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10~11월 중 대구경북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14%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공급물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280) 10~11월 대경권 화장품 가격(전년동기대비 월평균)은 4.8% 상승하여 3/4분기(2.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281) 10~11월 대경권 농축수산물 가격(전년동기대비 월평균)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3/4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2.0% → 0.8%)되었다.

282) 10~11월 원유 가격(두바이유, 일평균)은 73.76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 하락하여 3/4분기(-9.4%)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283) 대구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전분기말월대비 축소(2024.3/4분기 -0.32% → 2024.11월 -0.29%)되었으나 타 지방권역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284) 경북지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023년 10,452호에서 2024년 23,322호로 크게 증가하여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대구지역과 더불어 당분간 주택시장 공급과잉이 해소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부동산114)

285) 2024년 10월 중 5대광역시 및 지방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이 전분기말월대비 상승(5대광역시 -0.04% → 0.00%, 지방 -0.02% → 0.01%)한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전세시장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 6. 강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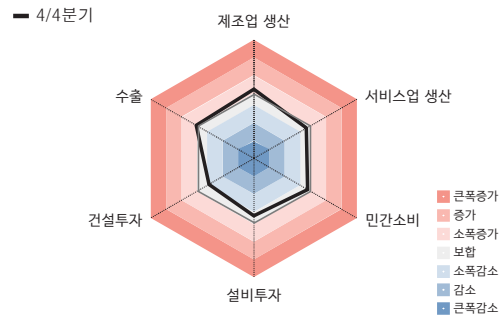
### (1) 개 황

#### 강원권 경기 보합

2024년 4/4분기 중 강원권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다소 늘어났으나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하였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10~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하락 전환하였다.

####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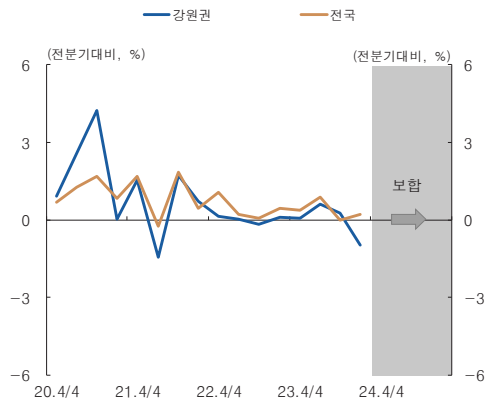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서비스업 생산 보합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예술·스포츠·여가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다소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도소매업은 대형소매점 판매가 일부 부진하였으나 승용차 판매<sup>286)</sup>가 개선되며 소폭 증가하였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 등으로 골프장 등 레저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다소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은 정부 대출규제<sup>287)</sup>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수심리<sup>288)</sup>가 약화되며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강원지역 방문객 규모<sup>289)</sup>가 줄어들면서 다소

286)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3,551대로 3/4분기(3,054대, 월평균) 대비 16.3%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87)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2단계 조치를 도입하였다.

288) 10월 중 강원지역 주택매매수급지수(100 초과시 수요위)는 97.0으로 3/4분기(97.7, 월평균)보다 0.7p 하락하였다.(한국부동산원)

289) 10월 중 강원지역 방문객 수는 1,283만명으로 3/4분기(1,479만명, 월평균) 대비 13.2% 감소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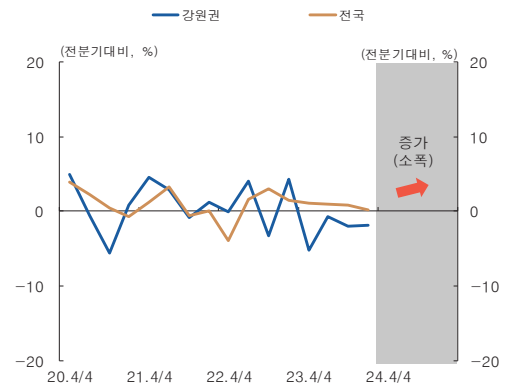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은 겨울철 야외스포츠 활동이 늘어나고 지역 내 축제<sup>290</sup>들이 개최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소매업은 물가상승률<sup>291</sup> 하락으로 가게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산업은 대출규제 지속과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sup>292</sup>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기, 시멘트, 음식료품이 증가하였으나, 의약품은 다소 줄어들었다. 의료기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시멘트는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 생산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음식료품은 면류의 수출 확대<sup>293</sup> 및 식음료 내수 증가<sup>294</sup>로 생산이 늘어났다. 반면 의약품은 전분기 콜레라 백신 생산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sup>295</sup>하였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료품은 면류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스류 개발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은 주요 회사의 법적리스크 완화<sup>296</sup>와 경구용 콜레라 백신 첫 출하<sup>297</sup>를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는 AI를 활용한 질병 진단기기 출시<sup>298</sup> 및 해외시장 확대<sup>299</sup> 등을 통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시멘트는 국내 건설경기 둔화와 정부의 중국 시멘트 수입 지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90) 2025년 1월 중 개최예정인 화천산천어축제는 2024년도에 153만 방문객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오고 있다.

291) 10~11월 중 강원지역 평균 물가상승률은 1.28%로 3/4분기(2.25%, 월평균) 대비 0.97%p 감소하였다.(통계청)

292) 2025년 1/4분기 중 강원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97세대로 4/4분기(5,132세대) 대비 3,035세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부동산원)

293) 10~11월 중 면류 수출액 규모(월평균)는 3/4분기 대비 16.1% 증가하여 전체 식료품 수출액 증가율(10.1%) 수준을 상회하였다.

294) 10월 강원지역 음료(알콜 음료 포함)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66.7로 3/4분기(137.7, 월평균) 대비 21.1% 증가하였다.

295) 10월 강원지역 의약품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19.7로 3/4분기(132.6, 월평균) 대비 9.7% 감소하였다.

296) 10월 중 휴젤은 경쟁사인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독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

297) 유바이로직스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개량형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에스(Euvichol-S)를 10월 중 처음 출하하여 니제르에 공급했다.

298) 12월 중 삼성메디슨은 '소아 심장 진단 전용 프롬브'와 '바닥고정형 디지털 엑스레이' 등을 출시하였다.

299) 11월 중 '독일 MEDICA 2024'에서 도내 의료기기 업체 10여 개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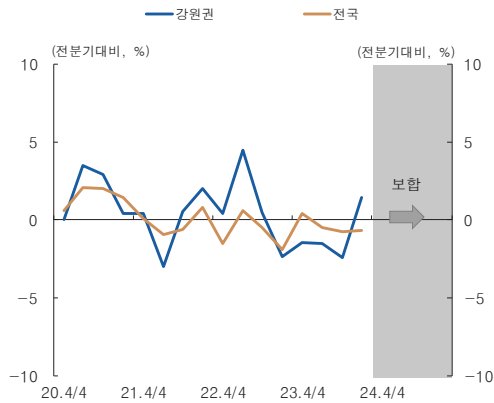
### (3) 수 요

#### 민간소비 포함

78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가 다소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폭 증가하였다. 준내구재는 따뜻한 날씨로 인한 가을 및 겨울 의복 수요 위축으로 소폭 감소<sup>300)</sup>하였다.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소비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차량 연료가 소폭 줄어들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300) 10~11월 중 강원지역 평균 의복잡화 카드사용액(신한하나농협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하였다.  
 301) 강원지역 건축착공면적은 2023년 2/4분기 이후 감소세(2023.2/4분기 -17.0% → 3/4분기 -20.4% → 4/4분기 -30.2% → 2024.1/4분기 -47.9% → 2/4분기 -21.2% → 3/4분기 -5.8%, 전년동기대비)를 지속하고 있다.(국토교통부)  
 302) 강원지역 지방정부 SOC 예산집행액은 2024년 상반기 월평균 2,515억원이었으며, 3/4분기는 1,675억원, 10~11월은 1,79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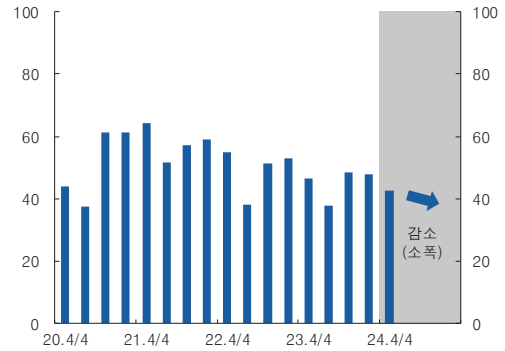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지역 방문객 감소 등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은 누적된 신규착공<sup>301)</sup> 규모가 줄어들면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으며 공공부문은 하반기에 축소된 지방정부 SOC 예산집행 기조가 이어지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sup>30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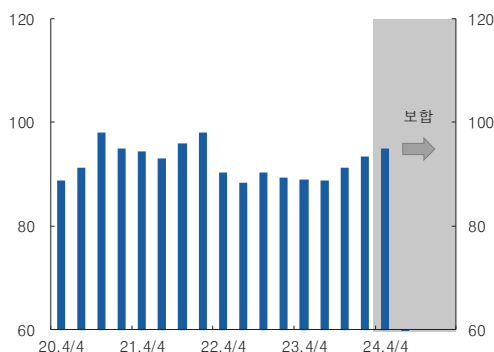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신규수주액 감소가 계속<sup>303)</sup>되는 가운데 신규착공 위축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은 신규 SOC 사업 착공<sup>304)</sup>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sup>305)</sup>

## 설비투자 보험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을 기록하였다.(지방재정365)

- 303) 강원지역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은 2024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1/4분기 -56.1% → 2/4분기 -29.7% → 3/4분기 -21.9% → 10월 -24.2%, 전년동기대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 304)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의 영향으로 2024년 9월 중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1,009.1% 증가하였다.
- 305) 정부는 2025년도 예산을 2024년도 대비 3.6% 줄여 편성(2024년도 26조 4,422억원 → 2025년도 25조 4,825억원)하였다.
- 306) 삼성메디슨은 2024년 9월 산부인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를 출시하였으며, 신제품 확대 등에 따른 매출 증가로 제조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307) 1~11월 중 강원지역 방문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하였다.(한국관광데이터랩)
- 308) 1/4~3/4분기 중 시멘트 내수 출하량은 3,222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하였으며 연간 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한 4,400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한국시멘트협회)
- 309) 일동후디스는 2025년 중 멸균팩 제품의 자체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기는 신제품 출시 및 시장 확대<sup>306)</sup>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선은 해저케이블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레저, 숙박 등 관광 관련 산업은 관광객 감소<sup>307)</sup> 등으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투자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멘트는 건설경기 부진<sup>308)</sup> 등의 영향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 면류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의 경우 생산설비 확충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음식료품의 경우 유제품 업체의 자체 생산 확대<sup>309)</sup>를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다수 업종이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유지·보수 등 소규모 투자만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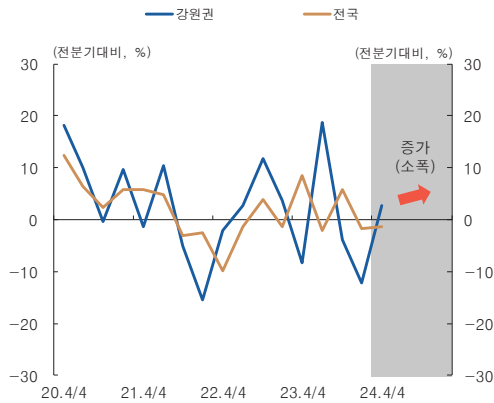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10)</sup>

품목별로는 면류, 화장품, 의료기기가 늘어났지만, 의약품은 소폭, 전선은 큰 폭 감소했다.

면류는 중동지역에 할랄 인증 라면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였다.<sup>311)</sup> 화장품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sup>312)</sup>하였으며, 의료기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확대<sup>313)</sup>하며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의약품은 전분기 호조를 이끌었던 아프리카 수출<sup>314)</sup>이 주춤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전선은 전분기 출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보툴리눔독신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진출<sup>315)</sup>로 유통경로를 확대하며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류는 소스류 생산설비 증설 및 태국 수출확대<sup>316)</sup>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선은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충과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sup>317)</sup>를 통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는 해외시장 확대<sup>318)</sup>를 통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금속광물은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 및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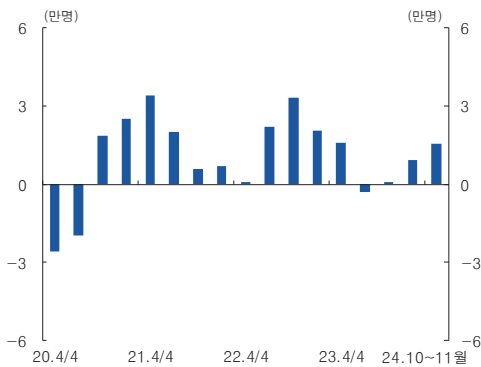
- 310) 10~11월 중 강원지역 일평균 수출은 3/4분기 대비 0.51% 증가하였고, 월평균 수출은 2.35% 증가하였다.
- 311)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중동지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면류 수출액(월평균)은 3/4분기 대비 66.0% 증가하였다.
- 312)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중국, 일본 화장품 수출액(월평균)은 3/4분기 대비 각각 120.2%, 14.9% 증가하였다.
- 313)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유럽 의료기기 수출액(월평균)이 3/4분기 대비 14.8% 증가하였다.
- 314) 10~11월 중 강원지역의 아프리카 의약품 수출액(월평균)이 3/4분기 대비 25.9% 감소하였다.
- 315) 휴젤은 두바이 소재 미용의료제품 유통사 메디카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11월 중 진출하며, 메디카 그룹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약 30개 글로벌 미용 의료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그룹이다.
- 316) 삼양식품은 태국의 로컬화민 맛으로 신제품 '맴땡'을 개발하여 11월 중 세븐일레븐을 통해 태국으로 처음 출하하였다.
- 317) LS전선은 현재까지 유럽(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등)과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등)를 중심으로 수주를 받아 제품을 납품 중이며, 해저케이블 5공장이 2025년 중 완공시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318) 11월 중 '독일 MEDICA 2024'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프랑크푸르트지회와의 협약을 통해 확보한 독일 수출관료로 향후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6만명 늘어나며 전분기(+0.9만명)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농림어업 및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자영업자가 증가로 전환하였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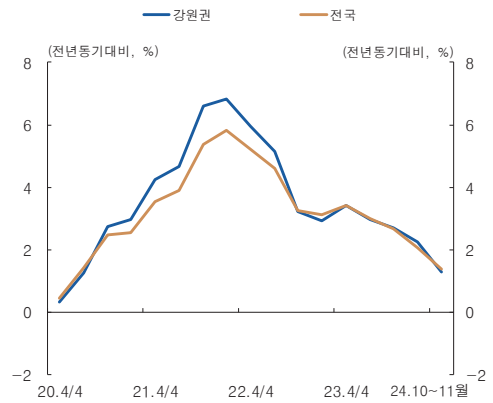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3%로 전분기(2.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전기·가스·수도가 소폭 반등<sup>319)</sup>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 크게 감소<sup>320)</sup>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과실 등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둔화<sup>321)</sup>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319) 10~11월 중 강원지역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며 3/4분기(+1.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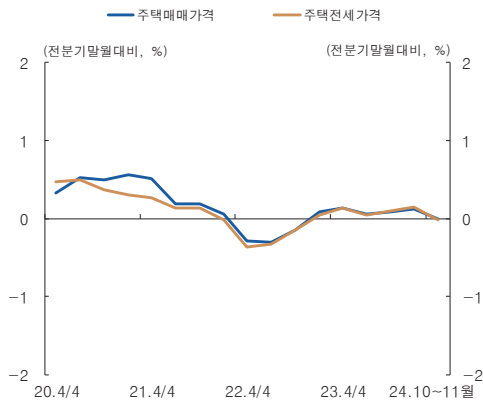
320) 10~11월 중 강원지역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2/4분기 2.4% → 3/4분기 0.7% → 10~11월 -7.9%)하였다.

321) 10~11월 중 강원지역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4% 오르며 전분기(+4.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과실(2/4분기 40.5% → 3/4분기 12.4% → 10~11월 -13.7%) 등의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전환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 말월대비 0.01% 감소하며 전분기(+0.12%) 대비 하락 전환하였다. 이는 정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sup>322)</sup>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 지역별로는 동해(+0.26%), 삼척(+0.16%)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춘천(+0.31%)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원주(-0.07%)<sup>323)</sup>, 속초(-0.61%), 강릉(-0.34%)은 하락하였다.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2% 하락하며 전분기(+0.15%) 대비 하락 전환하였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322) 2024년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은행 주담대 대상,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 도입에 이어 9월 대상범위 및 가산금리 적용폭을 확대한 2단계(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포함,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가 시행되었다. 2025년 7월에 대상범위 및 가산금리 적용폭을 보다 확대한 3단계(기타대출, 2금융권 포함,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가 시행될 예정이다.

323) GTX호재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춘천 지역은 수도권 매수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같은 영향으로 원주 지역은 하락전환하였다.(춘천 3/4분기 0.49% → 10~11월 0.31%, 원주 3/4분기 0.19% → 10~11월 -0.07%)

## 7. 제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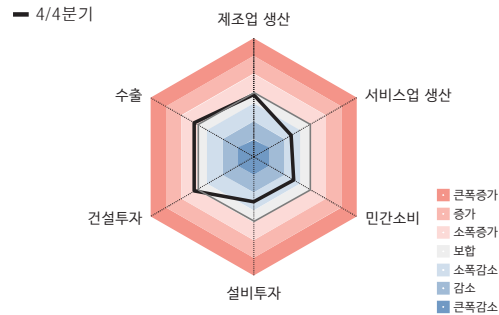
### (1) 개 황

#### 제주권 경기 소폭 악화

2024년 4/4분기 중 제주권 경기는 3/4분기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농축수산업과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건설투자와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소폭 감소하였다.

10~11월 중 취업자수는 3/4분기에 비해 전년 동기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 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 경기 레이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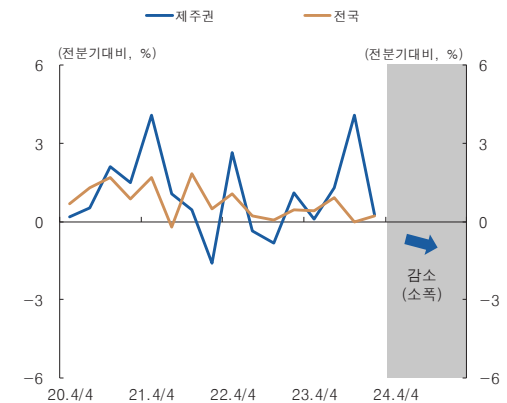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 (2) 생 산

###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2024년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3/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카지노업 등이 증가하였고, 운수업, 여행업, 레저업 및 임대업은 감소하였다. 도소매업, 숙박업과 정보통신업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업은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sup>324)</sup> 카지노업은 높은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전분기 수준 대비 소폭 증가<sup>325)</sup>하였다.

운수업은 항공운송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편수가 모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sup>326)</sup> 전세버스<sup>327)</sup>는 외국인 크루

324) 10월 중 주택 매매거래량이 614건을 기록하며 전분기 평균(539.7건) 대비 13.8% 증가하였다.

325) 도내 최대 규모(2023년 기준 8개 카지노 매출의 약 80%)인 드림타워 카지노는 10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42억원(전년동기 대비 22.2%)으로 3/4분기(전년동기대비 61.0%) 대비 증가율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326)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월평균)는 10~11월 중 12,808편으로 3/4분기 평균(13,352)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국제선은 10~11월 중 1,372편으로 3/4분기 평균인 1,649편을 하회하였다.

327) 10월 중 제주지역 전세버스 가동률은 44.3%로 전년동월(46.9%) 수준을 유지하였다.(제주관광공사)

즈 관광객<sup>328)</sup>이 포함세를 보였으나, 수학여행 단체관광객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포함세를 보였다.

여행업은 국내선 공급좌석 수 감소에 따른 동창회 등 단체여행 수요 감소로 소폭 감소하였다. 레저업은 내국인 골프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임대업은 렌터카 가동률이 하락<sup>329)</sup>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로드숍은 늘었으나, 내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더디지면서 대형마트, 면세점 등은 줄어들어 전반적으로는 포함 수준을 보였다.

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콘도형 숙소 및 중저가 호텔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농어촌 민박<sup>330)</sup> 등 내국인 대상 관광업소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정보통신업은 상반기 출시한 신규게임 실적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매출 증가세<sup>331)</sup>가 이어지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내국인 관광객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sup>332)</sup>, 국내선 감편, 국내 민간소비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공항 국제선 증편 계획 및 크루즈 입항 일정<sup>333)</sup>을 감안할 경우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된다.<sup>334)</sup>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소비 비중이 큰 업종<sup>335)</sup>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예상된다.

## 제조업 생산 포함

4/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의약품<sup>336)</sup> 등이 수출이 증가하면서 늘었으나, 비금속광물<sup>337)</sup> 등이 공수량 감소 등으로 줄어들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4/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은 건설투자 부진 지속

328) 10~11월 중 외국인 크루즈 기항횟수는 25회로 3/4분기 평균(28회) 수준을 하회하였다.

329) 10월 중 렌터카 가동률은 69.8%로 전분기(74.5%)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330) '24년 들어 제주지역에서 폐업한 2,313개실 가운데 농어촌 민박은 979개실(42.3%)을 차지한다.

331) 지역내 게임업체 네오플의 모회사인 NEXON(일본 상장)의 중국 매출액이 1/4분기 151억엔, 2/4분기 292억엔, 3/4분기 563억엔으로 증가하였고, 4/4분기에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332) 중국정부는 '24.11.8일부터 한국 등 9개 국가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였다. 기간은 '25.12.31일까지로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척과 지인을 방문할 때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방중 내국인의 비자발급비용 및 발급기간 관련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내국인 중국여행이 단체관광(골프/효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3) 한국공항공사 운항스케줄을 분석한 결과, '25.1/4분기 제주공항 도착 국제선은 월평균 720편으로 '24.4/4분기(690편)에 비해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도청의 크루즈 선정배정 결과(24.11.30일 기준)에 따르면 '25년 1/4분기 제주도로 입항하는 크루즈는 월평균 31척으로 '24년 4/4분기(22척)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4) 한편 최근 제주를 찾은 베트남인 38명이 잠적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발 전세기가 모두 취소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10월 기준 전체 국제선 운항편수(1,584편) 대비 베트남 운항편수는 18편으로 약 1.1%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어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35) 일반적으로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업 등이 관광객 소비 비중이 큰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마케팅 성과, 주된 타깃층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진 모습이다. 숙박업종을 예로 들면, 외국인 대상 미디어 노출이 많은 특정 특급호텔은 영업실적이 좋은 상황이나, 내국인을 주된 영업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은 폐업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36) 10월 의약품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58.3%를 기록하며, 전분기 평균(22.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 이외에는 음료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38.0%를 기록하며, 전분기 평균(16.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337) 10월 비금속 광물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32.8%를 기록하며, 전분기 평균(-22.7%)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그 이외에는 전자·통신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62.8%를 기록하며, 전분기 평균(-42.7%)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으로<sup>338)</sup>, 전자·통신 생산은 해외 메모리 시장 수요 둔화로 감소함에 따라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축수산물 출하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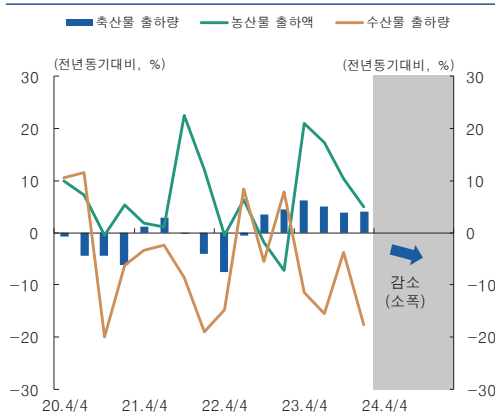
4/4분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소폭 증가, 축산물이 보합, 농산물은 감소하였다.

수산물은 전분기까지 어획량이 줄어들며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참조기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늘면서<sup>339)</sup> 소폭 증가하였다. 축산물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sup>340)</sup>하였다. 농산물은 감귤의 생육부진·열과 피해, 발작물 병해발생 등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였다.<sup>341)</sup>

모니터링 결과 향후 농축수산물 출하는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은 감귤(만감류) 생산량이 이상기후 영향<sup>342)</sup>으로 전년대비 줄며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은 최근 갈치 출하량이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축수산물 출하<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농축수산물 출하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청

338) '24년 1/4~3/4분기 기간 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53.3% 감소하였다.

339) 10월 참조기 위판량은 전년동월대비 77.5% 증가하였다. 10월 갈치 위판량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 참고로 갈치 위판량은 '24.1~9월 기간 중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40) 10월 중 축산물 출하량은 전분기평균대비 1.0% 증가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3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노지감귤 생산량을 37만 8,000여톤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23년 생산량(40만 5,885톤)을 하회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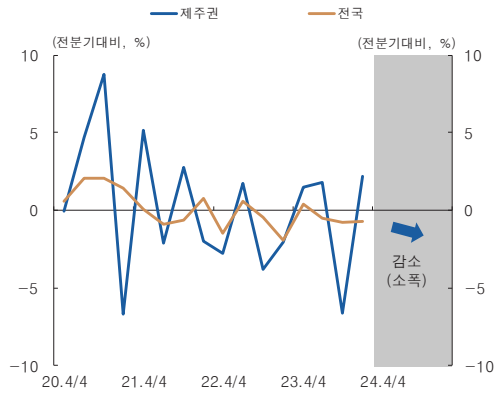
342) 자세한 내용은 현장리포트 (제주본부) 최근 이상기후가 제주지역 농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줄면서 3/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민간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는 가구<sup>343)</sup> 등 내구재가 줄었으며, 비내구재 역시 연료판매<sup>344)</sup> 등을 중심으로 줄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내국인이 주로 소비하는 문화·취미, 특급호텔<sup>345)</sup> 등이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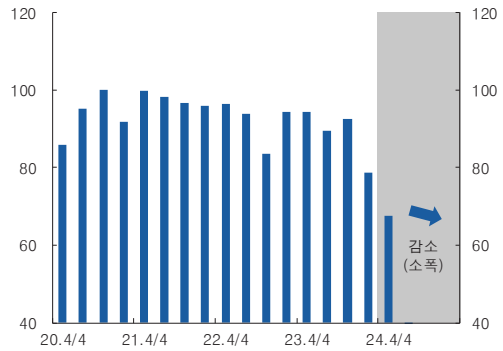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관광경기 회복 등에 따라 4/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국제선 운항편수 증가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등 서비스 위주로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설비투자 소폭 감소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과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현상 유지 수준의 투자만을 진행하고 있

343) 10~11월 중 제주지역 가구 신용카드 사용액(신한·농협·하나카드 기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4.6%를 기록하며, 3/4분기(-13.6%)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344) 10~11월 중 제주지역 연료판매 신용카드 사용액(신한·농협·하나카드 기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1.7%를 기록하며, 3/4분기(-2.2%)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345) 10~11월 중 제주지역 문화·취미 신용카드 사용액(신한·농협·하나카드 기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5.8%를 기록하며, 3/4분기(-2.2%)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특급호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8.2%를 기록하며, 3/4분기(-16.3%)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4/4분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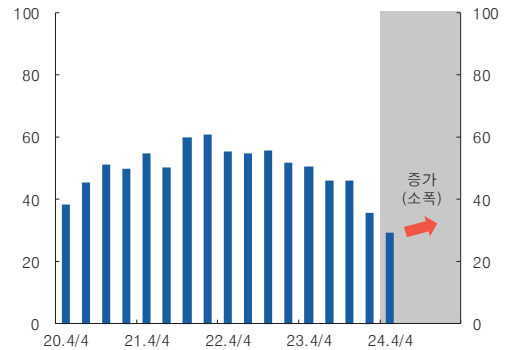
대다수 업체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간의 인건비, 원자재, 공공요금 상승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향후에도 설비투자보다는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응답했다. 다만 향후 금융여건 완화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은 설비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건설투자 소폭 증가

4/4분기 중 건설투자는 3/4분기 수준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지원사업의 착공으로 주거용 건물이 늘어났으며<sup>346)</sup>, 공공부문은 SOC 관련 투자<sup>347)</sup>가 늘어났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0월과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시장 부진<sup>348)</sup>에 따른 민간 건설사업 위축<sup>349)</sup>은 부정적 요인이나, 건설 관련 지방재정 지출 확대<sup>350)</sup> 등 요인은 부진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46) 건축 누적착공면적 증가율(% 전기대비, 36개월 누적): 24.2/4 -2.6 → 3/4 1.1 → 10월 0.6

주거용 건축 누적착공면적 증가율(% 전기대비, 36개월 누적): 24.2/4 -3.0 → 3/4 2.1 → 10월 2.2

347) 9~10월 중 제주지역 지방자치단체 SOC 관련(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월평균 예산지출액은 약 502억원으로 전분기(449억원) 대비 증가하였다. 실제로 최근 도에서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4·3 평화공원 활성화' 등 공공사업 2건을 발주하였다.

<참고> 공공부문 건설수주액 증가율(% 전기대비, 36개월 누적): 24.2/4 1.1 → 3/4 2.2 → 10월 0.8

348) 주택 건설 인허가건수는 금년 들어 큰 폭 감소하였다.(1~10월 중 -67.2%(전년동기대비)) 또한 상업용 부동산 경매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22년 18,594건 → 23년 27,801건 → 24.상 22,06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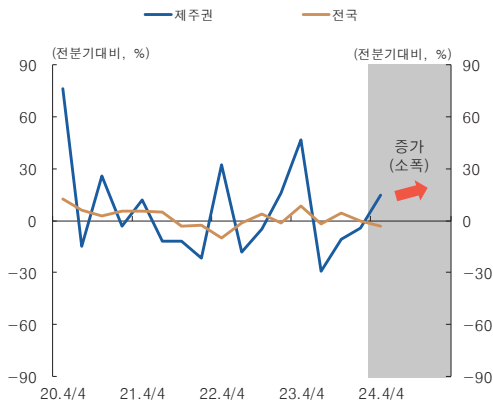
349) 미분양 주택이 10월 들어 증가하면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11월 100.0 → 12월 75.0)하였다.

350)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지출 예산이 전년 대비 12.08% 증액되었다.

## 수출 소폭 증가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51)</sup>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감소<sup>352)</sup>하였으나, 수산물과 화장품이 증가<sup>353)</sup>하였다.

###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4/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0월과 11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4/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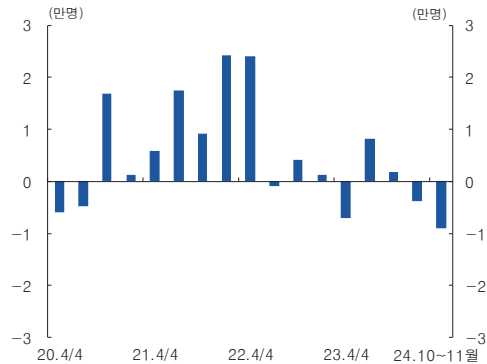
반도체는 해외 메모리 시장 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은 노지감귤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며 수출용 물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고용

###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9만명 줄어 전분기(-0.4만명)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sup>354)</sup>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감소 전환하였고, 건설업은 감소폭을 유지하였으며, 농림어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감소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감소 전환하였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351) 10~11월 중 제주지역 일평균 수출액(69.8만 달러)은 전분기대비 14.6% 증가하였다.

352) 10~11월 중 집적회로 반도체 수출(월평균)은 전분기대비 27.0% 감소하였다.

353) 10~11월 중 납치 수출(월평균)은 전분기대비 9.8% 증가하였고, 화장품은 70.0% 증가하였다.

354)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3/4분기 → 10~11월, 전년동기대비, 만명) : 서비스업 +0.2 → -0.1, 건설업 -0.5 → -0.5, 농림어업 -0.0(-0.04)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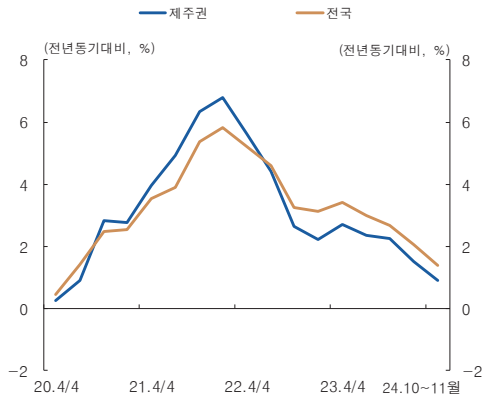
355) '24.11월 중 도소매·숙박·음식업 종사자 수는 크게 감소(전년동기대비 -12.1%)하였다. 한편 건설업 종사자 수는 '23년 7월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9% 오르며 전분기(1.5%)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국제유가 약세와 기저효과로 하락하면서 상승폭이 상당폭 둔화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 서비스와 공공서비스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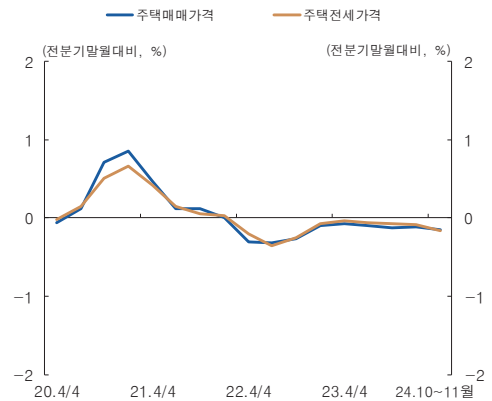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2020년 기준)

###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세 지속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 월대비 0.1% 하락하여 전분기(-0.1%)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최근 주담대 금리 상승, 미분양 주택 증가<sup>356)</sup>와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0.1%, 서귀포시가 0.1% 하락하였다. 전세가격은 0.2% 내려 2/4분기(-0.1%)에 이어 하락세가 확대되었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 중에서 월 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356)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 추이는 10월 들어 2,828호를 기록하며 9월(2,411호) 대비 17.3% 증가하였다. 최근 제주 시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청약 이후, 일부 당첨자가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